

개교 88주년 기념식 오는 6일 중강당에서 장기근속자 75명·공로상 수상자 16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해

개교 88주년 기념식이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오죽원이사장, 민병천총장, 황병수동학회장장을 비롯하여 내외인사,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강당에서 열린다.

개교 기념일(8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이를 앞당겨 갖게 되는 이번 행사는 삼귀의례, 국민의회, 발원문 봉독, 학교연혁보고, 개교기념공로패 및 부상 수여, 총장, 이사장, 동창회장 축사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주캠퍼스 총무과(과장=안종욱)는 개교 88주년을 맞아 교수 14명, 직원 18명 등 총 32명의 교직원을 장기근속 표창대상자로 선정, 오는 10일 오전 10시 공로상 수상자 4명과 함께 중강당에서 표창을 수여한다.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과)는 94학년도 특별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 연구업적 및 논문 등에 대한 심사로 결정된 지급대상자는 △인문과학분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종찬교수 △사회과학분야 경상대학 경제학과 장오연교수 △자연과학분야 이과대학 통계학과 김해중교수이다.

시상식은 오는 6일 중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특별학술연구비로 각각 3백만원씩 지급된다.

한편 공로상 시상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하게 되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30년 근속표창
△전찬원(무역학) △한상범(법학) △김인홍(정치외교학) △이병

동(농업경제학) △김근수(총무처 비상계획과장) (이상 5명)

▷20년 근속표창
△홍영백(사회) △유영상(가정교육) △김규석(건축공학) △김성운(행정대학원) △윤범대(포항병원 사무국장) △안준옥(의료원 총무과장) △박성재(관리처 관계계장) △김명숙(경영대학원 교학부) (이상 8명)

▷10년 근속표창
△이석운(철학) △김선근(인도철학) △임호일(독문학) △정수현(일문학) △김영순(화학) △정진환(교육학) △이해은(지리교육) △민병록(연극영화학과) △동철(물리학) △장태우(컴퓨터공학) △전서현(컴퓨터공학) △박해구(의과대학 교학계장) △김영수(경주 사무처 관계계장) △최종하(경주 교무처 이부계장) △최정훈(경주상경대 교학계장) △박승필(경주 불교문화대 교학계장) △김차일(경주 교무계장) △김영부(경주 사무처) △성일수

(경주 사무처) △정문환(경주 교무처) △신무호(경주 도서관) △최옥향(관리처) △권역자(전자계산소) △안관순(총무처) △이상오(총무처) △김재복(총무처) △이구현(관리처) △김홍중(관리처) △배미선(경주 기획홍보과) △양진영(경주 사무처) △김영숙(경주 지역개발대학원) △김숙우(경주 사무처) △구윤길(경주 사무처) △최숙희(경주 사무처) △이경호(경주 사무처) △석용재(경주 사무처) △권영식(산

업공학) △신현숙(경주 불교학) △인태평(경주 기초과정부) △이계영(경주 전자계산학) △허정식(경주 정보산업학) △김영동(경주 국어국문학) △소명희(경주 영어영문학) △박승석(경주 영어영문학) △박상범(경주 경영학) △조창욱(경주 경영학) △윤진호(경주 회계학) △김병기(경주 국제경제학) △송광표(경주 조경학) △장재호(경주 수학교육) △이이성(동대신문사 국장) △박경선(학생처 학생계장) △김경진(이부대학 교학계장) △조경진(체육실 체육계장) △박정훈(교무처 학술계장) △문용주(관리처 구매계장) △김종철(중앙도서관 열람계장) △신해철(중앙도서관 열람계장) △이동규(중앙도서관 사서계장) △최국진(중앙도서관 △박재호(총무처) △서영석(경주 국어국문학) (이상 62명)

▷공로표창
△이진구(전자공학) △홍윤식(역사교육) △김준호(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 △허광도(교무처 교무과) △윤건택(학생처 장학과) △김영진(총무처 총무과) △문용주(관리처 구매과) △김종철(중앙도서관 열람과) △유인수(경주 학생처 학생과) △오경희(경주 전자계산소) △김한경(경주 기초과학센터) △박진숙(동국의료원 경주병원) △황만수(총무처 총무과) △황영재(관리처 관계과) △양진영(사무처 총무과) △이정순(동국의료원 포항병원) (이상 16명)



▷제104주년 세계 노동절기념 대회가 2만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날 불교에서 열렸다. (관원기자 7면·허동혁 기자)

보 리 수 일지두선(一指頭禪)

일지두선은 마조도일의 제자 가운데 뛰어난 天童이 있었는데 천룡이 그의 제자 구저(俱絳)에게 보인 공부법이었다.

선가(禪家)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행각(行脚)이라 하여 선지를 찾아 다니며 법을 묻고 다니고 또는 자기 도력을 점검하는 습성이 있다.

무주방에 주석하고 있던 구저스님 회상을 찾은 실제라는 비구니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갖췄고 석장을 짊은 채 스님 주위를 세 번 돌면서 "한마디 말하면 갖을 벗고 인사 하라" 하였다. 이 때 스님은 범어리 모양 한마디도 말을 못하였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구저스님의 입장은 말이 아니었다. 삭발하고 큰 뜻을 품고 출가하였으나 아직 깨치지 못하고 보니 주자라도 명색이 부끄럽기 짝이 없어 쥐구멍이라도 들어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발심하여 정진하고 있던 차에 당시 선지식인 천룡스님이 찾아와 지난 내력을 자세히 말하는 구저스님 앞에서 다만 손가락을 번쩍 들었다. 이에 구저스님은 대오했다.

그 후 구저스님은 일생동안 일지두선을 두고 두고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진리는 하 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것으로써 천가지 만가지가 다 그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극을 유발하는 동인이 있어야 한다. 거기서 비로소 변혁과 발전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앞의 상황에서도 구저스님은 실재비구니가 아니었다면 일생은 눈 장막으로 지냈을 것이다. 선 수행에서 무엇보다도 분발심을 일으키도록 강조한다. 대진근(大進根), 대용맹(大勇猛), 대의단(大疑團)이 세 가지가 있으면 곧 성취되는 것이다.

천룡스님의 번쩍 들어 올린 손가락을 기억으로 하여 깨달음을 얻은 구저스님은 예지가 번득인다. 어디 그 뿐인가.

동산스님은 물을 건너다가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깨쳤으며, 항암스님은 청소를 하다가 돌맹이가 대(竹)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깨쳤으며, 백옥스님은 찻잔을 받으려 하다가 깨치지 않는가.

선은 항상 풀이 아닌 경지를 요구한다. 손가락 들 때 든다는 것도 없고 자기도 없을 때 천지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무언이 분리되지 전의 소식이 무엇인지 궁금해 요달하는 것이 선하는 길이다.

물은 물을 씻어 내지 못한다. 장구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내실있게 증명해 낼 수 없다는 사실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이다. 변화나 충격은 자기발전과 집단의 이익을 부여하는 건요한 일이다.

崔 爨 覺

‘부처님 오신날’ 맞이 불교도 주간 제등행렬, 봉축 기념식등 다양한 행사 마련돼

지난 4월 25일부터 교정 및 학교 주변도로에 3천여개의 교정등이 가설되고 오늘(4일) 오후3시 정각원 법당에서 2백여명이 수계를 받는 등 불교도 주간을 맞아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정각원(원장=한보광·선학)에서는 ‘법정스님 초청 강연’을 불교도 주간 불교문화행사로 주최하고 노영심과 김광석이 출연할 예정이다. 행사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계식-4일 오후3시 정각원 법당 △교정등 점등식-4일 오후5시30분 교정 성상당 △각부처 및 연구실 등달기-3일부터 13일까지 △불교문화행마당 및 불교사상 강

연회-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강당(제1부: 맑고 향기롭게 노영심 의 작은 음악회, 제2부: 법정스님 대법회, 특별공연: 김광석) △부처님 오신날 기념세미나-13일 오전10시 동국관(L401), 주회: 불교문화연구원, 제목: 개방화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 △제등행렬-14일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봉축기념식 및 다과회-18일 오전9시 정각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이행구·불교학)은 오는 18일 불기 253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장엄등 점등식 및 봉축연회식 행사를 가진다. 먼저 오는 10일 오후7시 녹야원

(우천시 원효관 중정)에서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내 장엄등 점등식을 갖는다.

지난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장엄 등 설치작업을 마치고 2주간 교내 일원에 밝히게 될 장엄등 점등식은 △베나레스 공연 △그개회사 △삼귀의례 △봉축사 △점화 △발원문 △정근(달들이) △축원(장왕장님) △사홍서원 △폐회사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오는 18일 오전9시에는 이도업(경각원장)스님을 법사로 모신 가운데 ‘부처님 오심의 참뜻’이란 법제로 정각원 법당에서 봉축연회식을 갖는다.

분당한방병원 입찰 지연 5월중순 착공 예정

동국분당한방병원신축에 따른 공사업체 입찰이 지난 4월21일 오전 11시 의료원 8층 회의실에서 실시되었으나 업체제안이 학교측에 정기에 미치지 못해 타결을 못본채 유찰, 현재까지 시일이 진행중이다.


학교측에 의해 최종결정된 신축 병원규모는 연건평 2천2백45평에 지하2층, 지상5층이며 1백백상 규모로 교육연구시설로는 강의실 2개, 교수연구실 3개, 예비실 2개가 구비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약 1년6개월로 예상된다.

신축병원의 개요는 △지하2층=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지하1층=식당, 주방, 진료실, 주차장 △지상1층=대기실, 외래진료실, 주차장

△지하2층=중풍센터, 요양치료실, 중환자실 △지상3-4층=병동부 △지상5층=교육연구시설, 정화원, 약재창고 등이다.

한편 의료원 구내과의 한 관계자는 공사업체가 낙찰되고 계약이 성사되면 늦어도 5월중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면/안/내
- 3 ... 블루리온드와 노동법 개정 방향
 - 4 ... 한반도의 맥전술
 - 5 ... WTO 장설의 의미
 - 6 ... 자동차문화 점검
 - 7 ... 10대 학력위원장 선거 공방
 - 8 ... 메이데이 조각전 지상전시
 - 9 · 10 · 11 · 12 ... 개교88주년 기념 특집



동국대학교

교수 초빙

1. 1994학년도 제2학기 초빙분야 (서울캠퍼스)

학과	전공분야
불교	불교경제론
영어영문	영어회화(외국인)
수리	대수학
물리	고체물리학
정치외교	정치사상
행정	인사행정
경찰행정	경찰학
경제	환경경제학 및 경제발전 성장론
정보관리	본산정보처리시스템
산림자원	임업경영학 및 정책학
기계공	유체공학
토목공	수공학
국어교육	현대문학
지리교육	지리교육 전공자로서 환경지리를 강의할 수 있는 자
특한	불학정치

(경주캠퍼스)

학과	전공분야
전자계산	정보통신/소프트웨어공학
전산통계	전산통계(프로그래밍 언어)
산업	전기안전공학(교정업 및 안전공)
한 의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물리요법과, 침구과
의	해부학, 내과(신장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1. 초빙인원: 각 전공별 약간명

“88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민족사학 동국대학교”

21세기를 준비할 새로운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빠르지 않으나 쉬임없이, 조금함 없이 용맹정진하는 기상으로 오늘을 갈무리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성실한 동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 자격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1949년 9월 1일 이후 출생자(의학계열은 예외)
다.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구현에 동참할 분

3. 제출서류
가. 이력서(전공분야 및 전화번호를 우측상단에 명기, 병합판사진 부착) 2부
나.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 각 1부
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증명서류) 각 1부
라. 연구실적 목록(제목, 연구자, 발표지, 발표일자 명기) 2부
마. 연구실적물(학위논문과 '90. 9. 1 이후 발표된 논문 및 저서) 각 1부
바. 임용후 수행할 연구계획서(4,000자 내외의 분량) 1부
사. 전문의 자격증사본(의학계열 지원자에 한함) 1부

4. 제출기간
1994년 5월17일(화)~5월20일(금) 17:00까지

5. 제출처
서울 및 경주캠퍼스 교무과(지원하는 캠퍼스별로 접수)

6. 기타
가. 외국어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본을 첨부
나. 서류심사후 초빙예정자에게는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울캠퍼스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 260-3031~4
경주캠퍼스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61) 770-2031~4

소모

김용철

(별교 공보부장·국문61호)

내 방엔 전화가 없다.
내 방엔 TV나 신문도 없다.
내 방엔 시계도 없다.

내 방은 섬이다.
내 방은 太初처럼 고요하다.
내 방엔 세월이 멎어 있다.

전화 왔다는 소리 탐장지 않다.
연속극 보자는 소리 별로다.
출근할 시간이라는 소리 소름 끼친다.

방업이 살았으면 좋겠다.
만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무직자 처럼 힘겹게 지냈으면 좋겠다.

책이나 읽고, 쓰고 싶은 줄이나 끄적이고, S화백의 그림이나 보고, 가끔은 美容지 여인도 뒤죽고 뺨잡인지 밤잠인지 모르게 혼란의 잠이나 자고...

“아빠 전화요?”
“여보, 한명희 안봐요?”
“당신 오늘 출근 안봐요?”

산다는 건 싸움인가.
나는 다시 투사처럼 구두끈을 매고
천화도 있고 신문도 있고 시계도 있는
일터를 향해 허둥허둥 걸는다.

약력 1965년 충청일보 신춘문에 시 '靈像' 당선 1972년 현대문학지 소설 '烈女碑', '虛像' 추천완료 데뷔. 작품집에 '너를 만나는 파도가 되어' '소설 김상강' 등 현재 별교 공보부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소설문인회 '문맥' 대표.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오자 하나에도 주의를

기사의 일관성을 지녀야

지나호 창간 44주년을 맞은 동대신문은 무척 신선했다. 첫면과 맨 뒷면을 칼라로 인쇄하고 '동대신문 44년, 동국의 역사'라는 다라는 문구와 함께 실린 학교 사진은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깔끔해서 화보를 받고 기뻐할 친구의 얼굴을 절로 떠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주의깊게 한자한자 읽으면서 난 조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면 기사 'U-R 국회 준비국인 대외'의 비준이 아닌 국회 준비비라는 오자가 순간 나의 실수인 양 부끄러웠다. 다른데도 아닌 1면 머리기사에서 그런 실수가 보여졌다면 그건 그냥 실수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부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최소한 44년 역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획 기사나 정도는 있어야 했다. 신문의 역할 중 하나는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오자나 탈자는 풀고 내용에도 의도된 바에 충실하여야 한다. 동대 신문의 무한한 발전을 바란다.

20여일 동안 여론의 머리맡 기사로 등장한 조계종 분규는 별교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때 과연 그럴까한다. 동대신문 1147호 역시 지난 13일 사퇴한 서 의원총무위원장의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1면의 관련기사인 4면은 사건의 원인과 동기 그리고 결과에 따른 향후 배경보다는 공권력 비호에 관한 모순점들만 나열한 듯하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기사는 읽는 이로 하여금 의구심만 가지게 할 뿐이다. 일단 터뜨리고 보는 단순고발식의 보도는 설득력을 잃게 한다. 적어도 머리말이 전개하는 내용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기사를 읽다보면 용어에 잘못된 표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교정보도는 볼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44돌을 맞은 동대신문의 다양성을 선보이기에 지면수가 너무 좁았다.

김현정 (공과대 산공과 본사모니터)

배성욱 (별교문화대 별교학과 본사모니터)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신규교수채용에 학생참여 보장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몇 번의 시련이 있다고들 한다. 아마 이번 투쟁이 우리지리교육과와 학우들에겐 그런 시련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같은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라면 누구나,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다 덕망높고 실력 있는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 지리교육과 학우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바램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학생참여보장'이라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지교인들은 20여일째 투쟁해 오고 있는 것이다. 처음 비상총회가 소집됐던날이 떠오른

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학림관 앞에서 4학년선배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족수를 충분히 넘기고, 우리 지교인들은 훌륭히 총회를 성사시켰고, 그 후 많은 회노애락을 함께 해왔다. 특히 대학에 들어온지 1달 남짓된 1학년학우들중, 수업도 몇 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전공이라는 것, 교수채용, 학생참여보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무척 낯설었을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수업거부, 사범대학장실 철야점거농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당찬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무엇보다도 사범대학장실점거농성이 이루어지면 서부터 우리의 투쟁들에 많이 지쳤을텐데도 불구하고, 조를 짜서 서로 돌아가면서 철야를 하고, 새벽에는 집에 간 학우들이 잠정적

마련해 온 음식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아침 8시가되면, 어김없이 후문으로 가서 우리와 상황을 온동약에 알려내는 선전전을 하며, 흠뻑 젖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타과학우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지교과는 여학우들이 많아서 농성하는 것도 약해보이고, 귀엽게 보인다고 하지만 지교과가 펼쳐내는 그러한 이기자적인 선전전에서도 진정 알고자 했고, 열어내고자 했던 소정의 목적들은 알차게 거둘 수 있었고, 비록 길으로는 눈물도 많이보이고 약해보일지 모르나, 그 눈물속에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과 끈기가 숨어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교과학우들도 다른 과학우들과 똑같은 학생들이다. 수업받고 싶고, 시험도 보고 싶고, 짤갈때 즐겁게 음악을 거닐며 풍

악의 봄을 만끽하며, 축제이야기에 마음도 설레이고 싶은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이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묻는다. 면, 지교과학우라면 누구나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순주 (사범대 지교과)

창작에 대한 치열함

개교 이래로 우리 학교는 문학의 메카로 불리어 왔고 여러 문학 동아리들의 치열한 창작활동은 타 학교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한때 '시인 공화국'이라 불릴만큼 신경림, 이윤하, 공광규등 뛰어난 문인들을 배출한 것도 그런 치열함 때문이었다. 지금의 학내 문학적 분위기는 이

런 창작에 대한 치열함을 거부하고 있다. 아니, 차라리 비겁하게도 피하고 있다. 후회를 이런 장후를 '이슈가 사라진시대'의 뜻으로 돌린다. 그러나, 시대는 문학에 있어서 그 속에 우리가 젖어들수 있는 '존재 구축성'을 가지는 동시에 생활의 세세한 면에서부터 조국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이 문학적 치열함이고, 더 나아가 대학인, 즉 지식인의 태도이다. 지금도 주간지의 가깝기사를 보며 걸걸거리는 학우들이나, 고민이라고는 연애나 시험밖에 없는 속물군성에 젖어 있는 학우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이 진정한 동국인이냐고, 당신들이 진정한 한 시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지식인이냐고 말이다. 박준영 (별교문화대 별교학과)

오늘을 사는 동국인 - 서대원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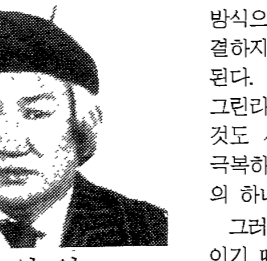
서명을 받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시다"라며 의의지만 힘겨게 외치는 서대원(학문 72쪽)·김경란 부부. 7년동안 월평균 10만원도 안되는 회료를 받으며 무언가 말해보겠다는 의지로 제작한 한국역사 14권이 교화사가 저작권을 타 출판사로 팔아버린 후 서대원·김경란 부부의 외로운 저작권 싸움이 시작되었다. 3년전 교회사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으나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대출판사에 매수된 검사개인의 판결로 인해 서·김부부는 주지않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라는 바위를 깨야만 합니다.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모른 서민들이 당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서·김부부는 사건을 맡아온 검사 7명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공소시효는 오는 7월26일 아직까지 검찰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이 포함된 사건은 영구미제사건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관례. '가장 잔인한 폭력인 법' 앞에 주지않은 서민들에게 힘이고 검찰에 압력이 된다면 미친사람 소리를 들어도 좋겠다 서대원·김경란 부부는 힘있는 웃음을 보인다. 언론사, 감사원, 검찰총장, 청와대 등으로 보낸 호소문, 탄원서가 수백여건에 이르고 종로경찰서와 청와대 앞에서 김경란씨 혼자 농성을 한것이 수십차례. 그러면서 집안에 혼자 남겨진 서·김부부의 하나뿐인 딸 동희는 장애인인 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희는 언제나 웃음을 간직하고 있다. 미친사람이 많아 세상만 변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보며 서대원동문 가족의 웃음을 떠올리며 '계란'이 '바위'를 깨 사회를 가다려본다. (곽주영 기자)

동/문/갈/림

4월 이다. 산과 들에 겨우내 쌓였던 먼지와 회색 빛들을 물리치고 푸른 빛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나무가 눈을 뜨고, 새 울음이 하늘에서 들리면서 우리의 품에도 새로운 기운이 넘치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이렇기 기가 막히게 좋은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사이 신문지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좋은 계절의 찬란한 빛이 마냥 퇴색되어 가고만 있는 느낌을 갖는 것이 비단 나 뿐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을 아득한 먼 옛날의 일인냥, 아니 우리 인간의 역사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망각을 하고 살아 왔다. 오로지 더욱 많은 재산과 더욱 많은 권리와 더욱 높은 발전만을 바라보며 백만달러 선수처럼 앞만 보며 뛰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분명 얻은 것은 있다. 과거에 몇몇길 걸려서 가던 거리를 지금은 반 나절만에 갈 수가 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던 것이 세계각지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정제된 음식에도 눈이 차지 않는 세상에 살게 되었다. 양말이 귀해서 발마다 백열전구 안에서 태워서 양말을 기던 어머니들이 이제는 구멍난 양말은 무조건 쓰레기 통에 버린다. 분명 좋아졌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하고 풍족한 세상에서 오히려 더 마음이 좁아지고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되었으면 있을수록 무

자연의 겸손과 지제를 배우자

다. 그러나 무한한 인간의 욕심과 한정된 지구자원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의 우르파이리온드니 그린라온드니 블루라온드니 하는 것도 지구문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교육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동양은 원래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연과 일체가 되어 생활을 해왔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품에 안기어서 자연의 혜택을 감사하게 누리면서 동양의 문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왔다.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여기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겸손과 겸양과 지제를 배우는 것이다. 마음을 물자로 전부 다재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바로 잡음으로서 그러한 마음을 채우는 데 필요한 물자 자체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성철스님의 유품이 바로 이러한 것을 사자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성철스님이 가진 것은 비록 몇개 안되는 낡고 구식인 것이었지만, 우리 시대를 사는 그 누구보다도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에 벌어진 교육계의 비리, 정치권의 부패, 조계종의 난맥상 등이 우리의 생활에 침투해온 서구의 정신때문이라고 하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 될 것인가? 즉 무한대로 나오는 인간의 욕심은 그대로 놔두면 그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한대로 생산을 해내는 것이 서구의 생활방식이



김영일 (정의 63쪽, (주)천양 대표)

목 먹 골

- 우리의 귀염둥이(떡부르조아지) 이영조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선물접수중) - 동물원
- 회계학과 93학번 동훈이의 방위훈련소 퇴소를 축하하며... - 경미장 일동
- 여러분! 우리 모두 김영삼의 역사적 사형선고를 축하합니다. - '94 영문인
- 루, 지현, 윤정, 생일 축하해!! - 사회학과 일동
- 5월3일: 하하하! 철화니, 4일: TENIS MAN재해니, 5일: Fighting! 귀서니형 - 정보관리(0) 94학번 3인의 생일을 축하하며 모범생 대표 미누가
- 정성아 노래패가임을 축하한다. 너로 인해 한층 격상된 노래패가 되겠지. - 오 정성아가
- 축하합니다 - 참 늦었지만 은성이 11기 기장이 된 걸 축하한다. 앞으로 열심히 하길. - DUCA 열기 양희부나
- 육아와 은진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고 참된 대학인이 되세요. 더불어 윤자가 참 예뻐요. - 겸공 89선배
- 신덕아 생일 축하합니다. - 형이
- 성욱아 생일 축하해! 늦었지만 - 이상한 아이
- 연재야! 결혼 축하해
- 94 조소연, 21번째 생일 축하! - 사람
- 신동원 선배 결혼을 축하합니다. - 회계학 연구실
- 5월8일 '94회계 강진영,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동국관 5층에서
- 용진아 생일 축하한다. 콩그레쉴레션! 우하하 - 통일 노동들

동/악/광/장

- 94 회계 파티팅 - 대경이가
- 바람소리들에게 처녀비행이 5월7일로 다가왔다. 무사히 맛있는 처녀비행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자. - 동대국회
- 무역학과 5월4일~7일까지 나간다~ 수화여행 - 무역 90일동
- 경향행정학과 3학년 5.12~14 수화여행갑니다. - 함공 94 이중범
- 대전 향우회 한번 모여봅시다. - 94학번 일동
- 열심히 합니다 - 이쁘고 착한 홍식이 힘내라. - 회계 동원
- 경영학과 '93의 단결을 다지면서... 시험공부 열심히 하세요. - 3인방
- 임미! 여러분 힘내세요.(은철, 원철, 형) - 내가
- C.A.P.S 여러분! 전시회 준비 잘하세요. - 은혁, 재현, 양의

온 방 골

- 5월 4일은 미라가 세상구경하러 붓대 잡고 나온 날입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 B-R-M 13기 일동
- 5월 3일은 성남시 향우회의 고미사 애경이누나 군에 있는 수교와 상인이 그리고 저의 생일입니다. 우리 세명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 한문학과 명=소낙비 새신랑
- 5월5일 자라나는 우리의 새싹 대철이의 생일 무지무지 축하한다. - 정보산업 1학년 일동
- 5월 3일 늦은 5시 제4회 무식나팔공연 축하드려요. - 철학과 일동
- 서울에서 열심히 돈벌다 귀찮하는 재근이 선배 환영합니다. - HAM일동
- 5월 3일은 종식이 생일, 5일은 중간이 생일, 9일은 형진이 생일, 축하해요. P.S 5월은 잔인한 달... - DUCO
- 이번주까지 남은 시험시기 일전하고 다음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청문실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시커먼생 생일축하한다. - 長 德
- 5월 5일 어린이날 병설이가 태어났대요. 그리고 5월 8일 은정이가 태어났대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 13기 동국 LEO

알립니다

- 샘 공연연습하느라 고생이 많디다. 열심히 고생해서 좋은 공연 올립니다. - 샘인중
- 5월 5일은 우리학교에서 산업안정공학과 주최로 전국 산업안전공학과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산-안공 92-two-up-down
- 동국한의여러분, 14일부터 16일에 청송군 부남면 감연동에서 첫 한의대 농활이 있습니다. - 장철사
- 어제(3일) 효성여대 초청공연을 무사히 마친 해방포지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 기장
- "멋지다 인간을 모인" 5·1 노동절 기념 집회에 모두 수고했어요. - 멋지다 김길림
- 법학과 4학년 여러분. 시험치느라 수고 많았고 미안한 점도 많았습니다. - 법4 과대표
- 5월 1일 저희 동국 L.E.O 식구들이 포항 유교고실업인들과 소풍을 갔다 왔어요. 모두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 친구 mood

온국민의 '살수입개발방안' 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UR(우루과이라운드) 태풍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GR(그린라운드), TR(기술라운드), BR(블루라운드)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다가오고 있다. 언론은 이바람을 3R이라 통칭하여 연일 이단법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펴볼 블루라운드는 논의 초기부터 정부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블루라운드로 인해 정부는 노동법개정 연기를 선언한지 불과 몇달 만에 다시 개정 검토를 발표하는 혼선을 자초해야만 했던 것이다.

블루라운드는 각국의 노동조건과 무역을 연계해서 진행되는 통상협상을 의미한다. 미달하는 노동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자세를 불공정교역으로 간주하여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죄수나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 수출되는 제품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의 제조경비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비해 턱없이 저렴할것인바 불공정교역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블루라운드의 이러한 요지는 이미 미국과 중국의 통상협상에서 적용되어 오고 있다. 중국의 '최혜국대우' 경진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미국은 교도소의 죄수들이 만들어 수출하는 중국제품에 대해 불공정교역으로 판정하고 무역규제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ILO(국제노동기구)는 국제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8일 보고서를 통해 블루라운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블루라운드가 국제무역의 교역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블루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기본적으로는 반대입장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일견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블루라운드의 본질이 선진국의 제국주의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발달도상국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루라운드의 채택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블루라운드가 일반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등의 후발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따라서 블루라운드를 잘 활용한다면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남한을 추격해오는 태국, 중국등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본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블루라운드로 인한 노동법의 개정이 남한노동운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가능한 한 늦추면서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하지만 블루

라운드 요구는 사형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력과 인건비의 절감에 그 목적이 있다. 노동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노동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비용을 절감,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기술주자와 신기술에 기초한 자동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 또는 해고할 수 있는 - 방식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해고규제조항의 완화,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파트타임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유급휴일과 생리휴가의 축소, 잔업수당의 50%에서 25%로 감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작업, 철야수당도 아까워서 병행시간근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의 이러한 의도는 단위기업 차원에서는 노동력과 인건비의 절감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전체 국가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재실 잡이'라던지 노동자들의 고용난 뿐만 아니라

이런 외증에 블루라운드의 등장은 법개정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ILO권고안을 무시해 버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블루라운드의 조성이 곧바로 법개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일부를 고치는 대신 자본주의 속원인 근로기준법의 대대적인 개악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노사협력에 의한 3R 파고의 극복이 유달리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노사협력을 통해 블루라운드를 극복하자"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만약 정부와 자본의 의도대로 된다면 블루라운드는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계기는 커녕 오히려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 될 것이다. 문제는 블루라운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역량이다. 보다 가열찬 노동법 개정투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시시 **본문**

이봉우
구로노동연구소 소장



블루라운드...노동법 '개정' 아닌 '개악' 이라니

노사협력으로 3R 파고 극복해야

라운드의 등장은 이미 ILO로부터 노동법 개정의 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더 이상의 연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개정사항을 가능한 한 늦추는 반면에 자본에게 유리한 개악사항은 -특히 근로기준법의 개악- 앞장서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의 특징은 개별적 노사관계의 개악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ILO권고사항을 대미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운동에서 끈질기

게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은 주로 근로기준법의 개악 시도로 생리휴가 폐지, 병형근로의 도입, 유급휴일의 축소, 해고규제조항의 완화,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배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자 파견법의 제정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가 개정하려고 의도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정사항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금전적인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만큼 반발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측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력과 인건비의 절감에 그 목적이 있다. 노동경제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노동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비용을 절감,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기술주자와 신기술에 기초한 자동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 또는 해고할 수 있는 - 방식의 도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해고규제조항의 완화, 근로자파견법의 제정, 파트타임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유급휴일과 생리휴가의 축소, 잔업수당의 50%에서 25%로 감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작업, 철야수당도 아까워서 병행시간근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의 이러한 의도는 단위기업 차원에서는 노동력과 인건비의 절감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전체 국가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재실 잡이'라던지 노동자들의 고용난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진단한다

장서실태와 학교행정

여전히 책상 등은 없다.

올해 도서관 도서관구입비 예산으로 학교당국은 2억5천만원을 책정, 재단이사회를 통해 확정되었다. 지난해 대비 4백만원이 인상됐을 뿐이다.

올해 도서관측은 대학평가인정제가 실시될 것을 감안 도서관구입비로 4억4천4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였다. '예산삭감'을 내세우며 어느 해 어느 부서도 예산요구안이 1백%관철되는 것은 힘든 것이 통례지만 도서관의 경우는 정도가 심한 경우다. 지난해 대비 4백만원 증가했으나 이용대상자 1만1백92명에서 4백만원, 즉 1인당 2%도 채 안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인산풍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지난해(제1147호) 분지가사나 도서관측의 도를 고려할때 오히려 90~91년 2천만원, 92~93년 7천만원이 증가됐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증가폭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도서관구입비 소폭증가에 대한 기회조정실 예산과의 답변은 대강 이렇다. 이른바 순수 도서관구입비의 책정이 소폭인 '본' 2천만원으로 책정된 특별예산이나 국고보조금, 여타 지난해 대비 50%인상된 관리용품비(3천만원→4천5백만원)를 생각하면 도서관 예산에 '신경은 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좀 더 내면을 살펴보면 답은 간단하다. 올해 대학평가제의

도서관구입비 항목에서는 1인당 4만원 수준이면 1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도서관구입비 수준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당국이 무리해서 () 예산을 늘릴 이유는 없었던 셈이다. 과장된 추측일지는 모르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이런 추측도 무리는 아니다. 올해도 등록금은 16%올랐다. 2%도 채 안되는 도서관구입비를 생각하면 학교당국이 말하는 이-공계 실현실수방안을 바탕으로 대략 연 5백여만원이 투입돼 반영된다. 또한 도서관구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학과추천도서는 올해1학기의 경우 4월까지 신청서를 마감하고 48개 과 각각 70만원을 배정, 도서관구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과정에서 각 과는 학과장을 중심으로 과 교수, 대학원생들의 논의를 거쳐 보통 4~5백만원 선의 도서관구입을 요청한다. 때문에 70만원의 수입기를 설치예산 증가의 반작용으로만 풀이되기에는 역연한다. 기본

적으로 학교당국에서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것이 근본적 이유가 아닐까? 도서관구입비 항목의 문제. 도서관구입비 항목은 크게 학생회방문도서, 학과 추천도서, 참고도서를 중심으로 짜여진다. 학생회방문도서는 도서관에 비치된 회비만을 갖고 있는 도서관측은 과 신청도서의 1/7정도만 소화할 수 있을 뿐이다. 올해처럼 몇몇 과수가 개별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도서관구입을 신청할 때 한정된 예산만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측은 난감할 뿐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사에서 지난해 4월2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도서관구입요구안을 도서관측에 전달했지만 참고자료이상 관철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

앞서 제기한 올해 도서관구입비의 소폭증가 등 도서관 환경개선은 여전히 근본적 필요성을 절실히 구성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한 개선될 수 없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서 도서관의 D-B시스템을 구축하고 목록화작업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과 자료조사를 위해 처음부터 외부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이들을 담당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학교당국의 도서관의 효율적 기능확대를 위한 계획과 투자가 이끌어내어주어야만 한다. 올해 예산안 책정에 대해서 무덤덤히 받아들이는 관련부서 직원들의 모습에서 느꼈던 누구나 솔직하게 학교당국 관리자들에게 말 못하는 가슴앓이처럼 도서관 건물또한 가슴 앓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보인다.

박수로
(본사 전 편집장)

대학원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 분석은 다음호에 게재 됩니다. (사회부)

사설

동국의 풍토

오는 8일은 개교 88주년 기념일이다. 전통국인이 다시한번 동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볼수 있는 시기이다. 동국의 여제를 살펴보자. 1906년 5월8일 당시 불교계 선각자들은 최초의 민족사학을 설립한다.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갈 때 민족자본에 의한 민족교육을 위해 세워졌던 명진학교였다. 일제하 2번의 강제폐교, 1953년 국내최초 종합대학 승격등으로 동국은 민족대학으로 그 번모를 지켜왔다. 지금의 동국은 어떠한가. 구성원들은 '동국중흥'을 이야기한다. 동국의 옛 명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것 같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입장만을 밝히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이나 상대방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제26대 총대의원회의 무리한 선거강행에서 기인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총대의원회는 선거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지금의 상황들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대의원회가 선거를 강행한 그 의도는 무엇일까. 학생회 강화를 이야기 하던 총대의원회가 학생회를 정교간의 분열로 끌고 갈 상황에서 선거를 진행시켰다. 총대의원회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서 모든 문제가 총대의원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선거당시 학생복지위원장 직선제를 자신들의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26대 총학생회 역시 이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총투표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한 단과대 학생회장들도 학생회를 분열된 모습으로 끌고 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어느누구도 긍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상황은 잘못 됐으니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대립과 반목은 이미 우리동국의 풍토가 되어버린 것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동국의 미래는 밝을수 만은 없을 것이다. 88년 민족대학으로서의 역사를 이제는 되찾겠다는 의지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국만평

김상남



대학원에서 여론 조사한 결과 분석은 다음호에 게재 됩니다. (사회부)

공 고

1994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4집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1. 논문집 명칭: 대학원 연구논집 제24집
2. 투고대상: 본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 본 대학원 출신 시간강사, 본 대학원 조교
3. 원고매수-인문사회계: 200자 150매 이내 (워드작성시 A4용지 25매 분량)
자연과학계: 200자 100매 이내 (워드작성시 A4용지 20매 분량)
4. 제출부수: 교정용 및 심사용 4부 및 디스켓 1장 (아래아 한글 2.0버전으로 작성)
5. 원고제출마감일: 1994년 8월 31일
6. 발행예정일: 1995년 1월 31일
7. 게재여부 통보: 1994년 10월 중 개별통보
8. 제출처: 대학원 교학부 (전화 3093, 3094)
9. 원고는 별첨된 투고요령에 준하여 작성해 주시고, 워드프로 세서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응모하여 통과된 원고를 교정할 때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논문집에서 제외되므로 제작계획에 따른 교정일자를 꼭 지켜 주시어 논문집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장

'94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 모집인원: 1학년(○○○○명), 2학년(○○○명)
- 지원자격: 4년제 대학-1학년(72.1.1~78.1.1 출생자)
2학년(71.1.1~77.1.1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94.3.10~5.7(학군단 본부)
· 구비서류

1차(지원서)	2차(신체검사시)
· 지원서(사진첨부) 및 서약서 각 1부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 각 1부
	· 사 진(4×5cm) 3매

- 선발절차
· 1차: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신체검사
- 합격자 발표: '94.8.10
- 특 전
· 학군후보생 지원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학습보조비 지급
· 희망 및 전공 학과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육군본부

'95 학군 사관 후보생 모집

(R.O.T.C)

- 모집인원: ○○○○명
- 지원자격
· '93년도 4년제대학 2학년 재학생
· '71.1.1~'77.1.1 출생자(18세~24세 미만)
- 장교 임관 결격사유 없는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94.4.1~5.7(학군단본부)
· 구비서류

지원서접수시	신체검사시
· 지원서 및 서약서 1부	·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대학입학 및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사 진(4×5cm) 2매
·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사 진(4×5cm) 1매	

- 선 발: 대학성적,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문검사, 품성평가
- 합격자 발표: '94.12.8
- 특 전
· 무시험 선발
· 소위 임관, 중위전역 또는 복무연장, 장기복무
· 의무 복무 기간: 2년 4개월(장교중 최단기)
·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 대기업체 학군출신장교 우대선발 및 처우
- 문 의 처: 각 대학 학군단 본부

육군본부

한반도의 '카멜레온' 핵전술 25시

주변강국에 밀려 당연시된 한반도 핵부재 정책 현정부, 국가안보정책은 5년 민족생존은 영원 숙지해야



이정선
군사평론가

핵이론의 함축성

플루토늄에는 재처리시설이 필수적이고, 우라늄에는 농축시설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시설은 핵무기의 핵심재료인 플루토늄(PU239)을 추

출해낼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핵탄제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재처리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원자로에서 타고남은 찌꺼기의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이 추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재처리시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퓨렉스기술은 재처리시 독성과 방사능을 발산하는 물질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납유리로 완전히 차단된 핫셀이라고 불리는 고속중성자 및 우라늄혼합(MOX)연료용 실험용로를 이용해 외부에서 내부물질들을 원격조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비료화학공업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기술수준으로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플루토늄의 재처리시 반드시 고속중성자 방식에 의한 핫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규모와 자동화정도에 의하여 재처리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핫셀의 재처리능력을 상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우라늄농축을 획득한 경로는 우라늄광산에서 채광된 우라늄원광을 가지고 생산공장에서 '선광-분쇄-산침출-이온교환-침전' 공정을 거치는 정련과정의, 즉 이온화된 기체 우라늄을 전자분리장치인 알파크로토프장치를 이용하여 발생되는

강한 자장속에 넣어서 천연우라늄(U235)과 보통우라늄(U238)을 분리시켜 노란색 분말로 정련된 옐로우케익으로 만든다. '산처리-식순정제-아금-가공-금속우라늄-피복-핵연료봉'의 가공공정을 거쳐 핵연료 또는 핵연료봉의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핵무기제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있는 우라늄농축방식을 살펴보면, 90%이상의 고순도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천~3천단계의 과정을 거쳐 농축이 가능한 가스확산법과 노즐분리법, 그리고 4RPM을 이용하여 35단계 과정만으로도 농축이 가능한 원심분리법 등이 있다. 최근 개발중인 적외선 레이저분리방식은 1단계의 농축과정으로 90%이상의 고순도 농축우라늄 생산이 가능하고 외부노출이 전혀안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난이도가 높은 하이테크 기술이 종횡무진인 것으로서 극소수 선진국에 국한되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핵개발국들이 적외선레이저법을 제외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핵무기 개발의도를 숨기려해도 핵시설과 핵연료제조공정상 일체상대(원자력발전이 가능하도록 물리적반응이 일어남)의 부유물 유출로 인해 인공위성 등 고도의 원격거리 정보감시망에 의하여 즉시 국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와같은 방법을 통해 핵탄두 1~20KT급 한발제자에 필요한 일체량은 핵물질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량인데 우라늄탄의 경우는 15~20kg이며, 플루토늄탄은 5~8kg이다. 핵탄두의 구조는 플루토늄탄을 이용한 내폭형과 보조적인 수단으로 고농축우라늄을 장착시킨 포탄형이 있다. 포탄형은 장약과 기폭제가 분리되어 있으며 내폭형은 핵연료물질과 장약이 층을 이루면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내폭형과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포탄형보다 개발 자체가 어려운점은 많으나 핵물리이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핵융합의 수소폭탄 설계를 바탕으로 핵무기제조시에는 오히려 내폭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여 널리 퍼진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등위원소로서 죽음의 재로 불리는 걸레미일자 파편들이 대기권내 태양광선을 차단함에 따라 광대한 연기구름들의 어두운 지표면이 급격히 차가운 한랭기류로 형성되어지는 핵겨울의 공포가 시작된다. 반면에 연기구름속에 흡입된 태연에너지가 급팽창, 상승효과를 가져와 대기권으로 역류, 환원시킴으로써 생성되는 산화질소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일시적 백야현상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때에 태연의 강렬한 적외선이 지표면에 직접 닿게 되어 모든 생태계는 사멸하게 된다. 결국 핵폭발에 의해 야기될 파멸적인 환경훼손 및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 미치는 생태학적 균형의 질서가 파괴됨으로서 한세기 이상 동물의 서식이나 생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철인들이 바라보는 핵보유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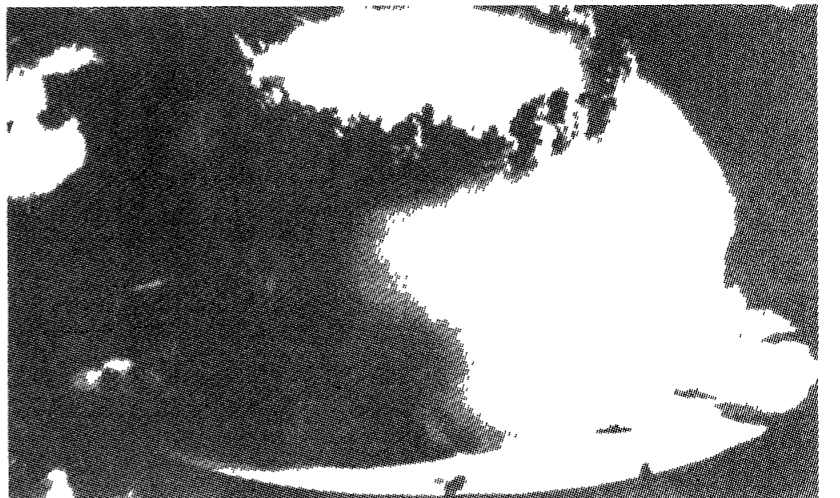
클라크에 의하면 핵무기는 비핵국가보다 안전하며 어떤 핵국가도 타국에 의하여 국경을 침범해 공격받지 않았고 2차대전 이후 전쟁이 발생하였지만 어떤 핵보유국도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는 제국가 및 세계 평화에 다소 이로운 영향을 준다. 특히 핵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대신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적 협력체제 구축의 기반이 될수있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1964년 중국도 핵보유국의 대열로 들어섰을 당시 비핵화는 오히려 특정지역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핵무기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스스로 핵무기를 갖는 쪽을 택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세계에서 핵무기를 없애려 한다면 모든 나라들이 핵보유국처럼 핵무기를 갖는것이 좋겠다고 밝힌바 있다.

핵겨울의 공포

핵탄두 IMT급 한발이 한반도 상공에서 폭발되었다고 상상할때 지상원점을 중심으로 수심마일이내의 인적-물적피해는 물론이고 장전지파(EMP)로 말미암아 한반도 전역에 발전소의 기능이 자동적으로 정지되고 모든 전기-전자-통신기기는 일시에 작동이 멈추고 말것이며, 만약 야간이라면 암흑속의 교통과 통신불통 상황하에서 대도시의 어비규환의 연옥을 방불케 될것이다. 즉 핵폭발후 초래되는 폭풍과 대규모 화재로 인한 파괴, 대기권 상층부에 형성된 광대한 연기구름과 먼지, 방사능비진, 한랭 및 암흑 등은 순간기류를 통

핵전쟁이아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인류 전멸을 의미한다

미래에도 핵을 방패로 삼고 재래형 군사력을 창으로 한 비핵재래형 전쟁은 핵의 사각지대에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운명은 핵무기의 독점내지 절대우위로서 이른바 중무장된 평화존속이라는 어떤 단일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핵전쟁이아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인류전멸의 소동과 고모라성과 같은 불세례를 면치 못하



48년전 핵실험으로 버섯구름이 일어나 마셜 군도를 뒤덮고 있다. 방사능 잔류물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핵실험의 위기를 또다시 가중시키고 있다.

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호간의 심리적 위협에 의한 균형이 겨우 전쟁 역제를 성립시키고 있다. 그 동안 미-소양국 상호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전 지구상의 47억인구가 1인당 45톤씩의 TNT를 짊어진 채 핵의 인질로 전락한 오늘날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세계적 모든 국가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지구의 환경 파괴와 에너지 부족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해 핵의 평화적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추세이다. 특히 비경제적인 재래식 무기체제에 의한 군사력축소를 위해서도 군축이라는 합리적인 명분아래 핵전력중심의 군사력 재편만이 제3세계의 판세작용을 통한 국제 격차의 해소, 국위선양, 외교안보력 강화 등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모든 나라들은 주변 국가정세 추이를 살피거나 핵개발을 질적-양적으로 더욱 발전-확산시켜 나갈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오늘날 국제적인 핵다극화 시대에 있어서 남-북한만이 핵의 부재라는 것은 과연 미래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향후 21세기 첨단과학산업과 기술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됨은 물론 에너지 자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포기마저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정치에 있어서 경제적 부의 가치와 권력배분의 불균형에 대한 중대한 지렛대 역할 자체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제3세계의 핵강국에 대한 영원한 핵속국을 자처하게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일례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지 등 남태평양 11개국의 핵강대국들은 남태평양지역에서 핵무기의 획득, 생산, 보유권리와 자국영토내에서 핵실험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85년 8월6일 체결한바 있으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관련 핵보유국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지금까지 이조약의 해당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있고, 프랑스는 계속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핵무기 관련시설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활적인 민족생존의 안보를 위협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결코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변강국에 대한 약속국가로서의 당연된 의무이행은 현실정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현정부가 국가안보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유

할 점은 국가보존을 위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 5년에 한정된 반면에 민족생존은 영원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3D핵전략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부인(deny), 지연(delay), 은닉(disguise)의 3D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IAEA의 사찰로 원자로의 성능 및 재원이 밝혀짐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제조과정의 농축기술과 핵심장치의 획득여부, 또는 개발가능성, 외부노출 등 상대적 분석에 따른 핵무기 유무판별을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3D전략에 휘둘러 여지없이 이끌려 다닌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어닥친 냉전붕괴로 인해 급격히 몰출된 북한의 핵문제에 한-미 정보능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결과로서 북한이 발전공과이전 극비밀리에 제3세계국가인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이란 및 동유럽의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쿠바 등 국제 핵 암거래 경로를 통해서 이미 다량의 플루토늄내지는 농축기술과 제조장치가 밀반입 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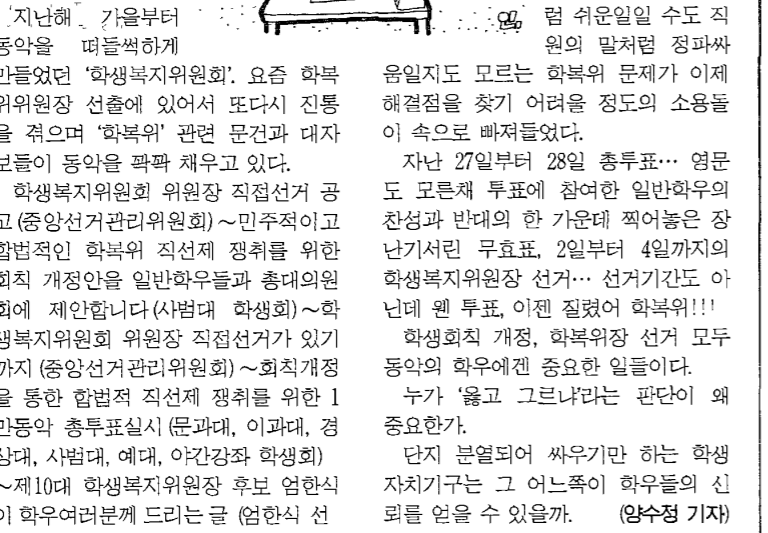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가 되고는 탈냉전의 현상이 인한 정치-외교적고립과 세습체제 쇠퇴 및 군사적으로 당면한 열악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과다한 군비지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더이상 한국과의 재래식무기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적우위 군사적우위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한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에 의존된 군사력중대의 불가피성과 동시에 위성국간의 핵무기 수출로서 경제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예상된다.

동약로

"우리가 최고야"

"학복위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은 문제를 어렵게 풀고 있습니다... 어느 일반 학생의 답변.
-정파싸움이 얽혀있어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다... 어느 지원선생님의 말씀.
"지나해, 가을부터 동약을 딱딱하게 만들었던 '학생복지위원회', 요즘 학복위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또다시 진통을 겪으며 '학복위' 관련 문건과 대자보들이 동약을 딱딱 채우고 있다.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직접선거 공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민주적이고 합법적인 학복위 직선제 정취를 위한 회칙 개정안을 일반학생들과 총대의원회에 제안합니다(사법대 학생회)~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직접선거가 있기 까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칙개정을 통한 합법적 직선제 정취를 위한 1만동약 총투표실시(문과대, 이과대, 경상대, 사법대, 예대, 야간강좌 학생회)~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후보 엄한식이 학우여러분께 드리는 글(엄한식 선

운분)~93% 학우들은 회칙 개정을 통한 학생복지위원회 직선제 실시를 원하고 있습니다(6개 단과대) ... 기다들들들.
단지 몇몇 학우의 관심속에 동약을 가득 채워버린 문건들이다.
일반학우의 답변처럼 위문일일 수도 직원의 말처럼 정파싸움일지도 모르는 학복위 문제가 이제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정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자간 27일부터 28일 총투표... 영문도 모른채 투표에 참여한 일반학우의 찬성과 반대의 한 가운데 찍어놓은 장난기서린 무효표, 2일부터 4일까지의 학생복지위원회 선거... 선거기간도 아닌데 웬 투표, 이런 질렸어 학복위!!!
학생회칙 개정, 학복위장 선거 모두 동약의 학우에게 중요한 일들이다.
누가 '올고 그르나라는' 판단이 왜 중요한가.
단지 분열되어 싸우기만 하는 학생자치기구는 그 어느쪽이 학우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양수정 기자)



21세기 한국의 섬유산업 - 삼양의 첨단기술이 先導하고 있습니다

1924-1994

수출한국의 기동 섬유산업-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한국의 섬유산업은 최근 개발도상국의 맹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출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폴리에스테르 섬유 메이커인 저희 삼양사는 섬유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단 하나, 끊임없는 첨단기술의 개발-그것은 바로 한국 섬유산업 리더로서의 책임입니다.

천연섬유 모방의 합성에서 이젠 초월하는 신합성으로!

이름조차 낯선 항균방취(抗菌防臭)섬유, 축열섬유, 초극세사, 이형단면 섬유, 미다공질 섬유, 고수축 자기신장 섬유 등 첨단섬유들. 천연섬유에는 없는 새로운 형질과 촉감을 가진 새로운 합성섬유 즉 신합섬(新合纖)으로서, 이 모두가 삼양의 기술이 선도하는 제품들입니다.

치열한 기술전쟁 시대에 대비하는 저희 삼양그룹의 『중앙연구소』, 『의약연구소』, 『신일연구소』 등-신물질·신소재의 부단한 개발은 물론, 2천년대 세계 5대 메이커를 목표로 삼양은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양사는 파키스탄, 베트남 등에 합작회사를 설립, 해외 생산거점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파키스탄 소재 Dewan Salman Fiber 합작회사)

◎주식회사 삼양사(化纖·식품·의료·환경사업) ◎삼양중기주식회사 ◎신일모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학주식회사 ◎신원제분주식회사 ◎전북투자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미디어 ◎다원 신탄 피아비 ◎삼양그룹연구소 ◎양명회 ◎수당합성회

▲건명(荷稱)섬유; 실크의 촉감과 질감은 물론, 스킨메시 사각기리는 소리까지 재현한 신합섬(1,000배 확대사진)

UR협상을 기점으로 하여 급속히 전개되어 온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급격한 변화 및 세계질서의 재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과 그린 라운드(GR), 블루 라운드(BR), 테크노 라운드(TR), 공정보역 라운드(CR) 협상이라는 새로운 전환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선 국제화를 초월하여 명백한 '세계화'(globalization)를 표방하고 있는 이같은 변화추세는 UR협상을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배제한 무한경쟁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들이고, 초강대국이 주도해 전세계에 강제하는 강압적 질서임이 분명하다. 세계화 추세의 핵심인 '생산은 국가화되고 교환은 국제화'가 이를 여실히 말해 준다. 이것은 한계에 달한 시장영역을 넓혀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이며 자본을 둘러싼 경쟁은 무엇보다도 노동에 새로운 경쟁선을 갖자는 것이다. 즉 '자본의 국제화를 초월한 '자본의 세계화'이며, 그 본질은 주변 및 반주변의 저임금 노동의 현실적인 계급착취 및 핵심-주변 착취의 연속적 변형태이자 동시에 공교화이다.

핵심국가를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UR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되는 등 세계화로의 진행이 가속화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같은 '지배논리의 탈바꿈 및 공교화'는 핵심국가들 간의 공통분모가 그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분모 위에 미국의 쇠퇴와 유럽, 일본의 부상이라는 핵심국가들 간의 불균등 발전 및 세계경제의 침체(특히, 초국적 기업의 위기) 상황 또한 결합되어 있다.

핵심국가들 간의 불균등발전 및 패권의 변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누적된 모순이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계기로 표면화 되면서 미국의 쇠퇴와 더불어 일본, 유럽의 부상이라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세계화와 세계무역기구 창설의미

'지배관계 은폐한 핵심국 이데올로기'

WTO, 외양 평화기구 표방...지배구조의 탈바꿈 형태

간의 불균등발전이 점차 심화되었고, 결국 세계경제가 미국 주도의 질서로부터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초국적 기업의 위기상황은 핵심국가들의 '경쟁에 기초한 시장확대전략이 세계적 과잉생산 속에 허덕여 온 초국적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상호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적인 생산방식이었던 대량생산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산 방식인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이 이미 출현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구조적 재편과정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주면에 따른 생산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포디즘'은 70년대 후반부터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 판매, 부품하청업체와의 관련 등 경영전반의 차원으로 확대되었고, 대량생산방식은 대조적으로 다양한 수요변화에 유연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결국 초국적 기업의 전 세계적 활동강화, 국제적 하청체제, 이를 위한 국가장벽의 제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대자본과 국가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세계경제는 불확실한 현상을 수반하면서 새로운 생산방식을 가지고 세계적 규모에서 전개되는 초국적 기업의

축적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자율성이 배제된 강제통합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불확실성 또한 세계적 통합과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핵심국 간의 경쟁의 격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통합화, 세계화 추세는 주변 및 반주변 국가들에게는 세계적 초국적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노출을 의미하며, 착취-피착취 관계의 일소는 커녕 불평등 교환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체제 내에서 국가간 순유변동조차 핵심국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제도적 장치인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와 분쟁해결기구(DS-BI)가 이를 말해준다. 무역정책검토제도는 세계무역기구가 각 회원국의 통상정책이나 제도를 정기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이를 무역기구의 규범틀 안에 묶어두려는 사전 정책조율메카니즘이고, 분쟁해결기구는 무역규범을 위반한 회원국을 시정시키는 사후 규제기구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여전히 국제무역관행에 뒤떨어진 많은 비합리적 제도와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주변국과 반주변국으로서의 공정한 기회의 획득 차원보다는 제도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린 라운드(GR)문제는 더 심각하다. 핵심국의 구성산업이 주변 및 반주변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 자체가 공해산업으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품목까지도 그린 라운드의 제재항목에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구는 하나"라는 모토하에 강요될 그린 라운드는 일차적으로 주변국이나 반주변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블루 라운드(BR)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노동관련 무역협상(무역과 노동의 연계)"으로 국제 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 생산된 상품수출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즉 주변 및 반주변국의 미성년 고용, 죄수, 노예 등 반프롤레타리아(semi-proletariat)의 값싼 노동력 생산에 기초한 상품생산 및 수출이 불공정 무역행위라는 것이다.

그린 라운드(GR)나 블루 라운드(BR)보다 주변국이나 반주변국의 주요 문제거리(환경오염, 근로조건 등)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아무리 대외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질서한 공업화로 환경을 파괴하고(심지어 핵심국은 산업폐기물까지도 주변국과 반주변국으로 수출해 왔다) 불공정 교역으로 주변국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 장본인이 불공정임을 감안할 때, 이는 책임을 주변국과 반주변국에 떠넘기자는 것

이고, 환경보존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명분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저의가 명백하다.

테크노 라운드(TR)는 더 노골적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의 조치가 무역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교역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핵심기술독점이다.

이처럼 UR협상부터 시작해서 그린 라운드, 블루 라운드, 테크노 라운드로 이어지는 라운드 세리즈가 지배구조의 탈바꿈 형태인 경제구조 개편이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은 다음인 경제구조 개편을 관철시키기 위한 상보적 전략인 정치구조 또는 상부구조의 개편에 해당한다. 외양은 흡사 평화기구를 표방하지만 본질은 정반대이며, 주변 및 반주변 국가들에게는 세계경제로부터의 일탈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세계화 추세는 메타내셔널(Metanational)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전환이며, 세칭 진정한 자유무역을 향한 행로라기보다는 제국주의적 침탈, 신제국주의적 침탈을 넘어 총체적 체제 수준의 메타내셔널(metanational)적 침탈을 위한 합법적(?) 국제적 관례, 질서의 형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반주변지역 및 주변지역에게 현재의 자유로운 경쟁(?)에 참여한다는 핵심국의

지배논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회피에 다를바 없다.

세계화는 여전히 계급착취 문제와 핵심/주변 착취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세계화 추세 역시 역사적 한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자본주의 자체의 전환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이행을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강력한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핵심경제의 독점형태의 자본이 그 정치적 보호하에서 계속해서 초과이익을 독점적으로 실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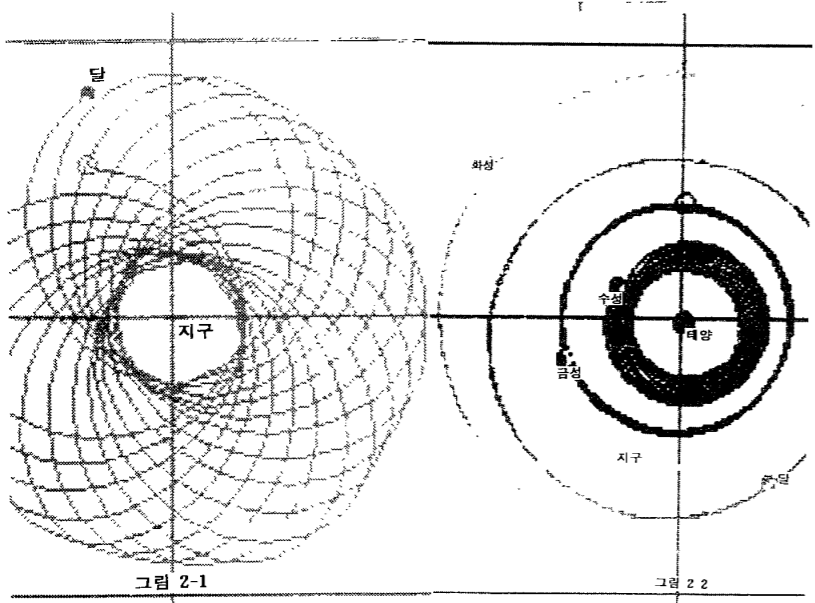
자본주의의 본질문제를 차치하고 세계화 추세가 국가 간 또는 기업 간의 게임이라는 주장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세계화 속에서의 게임은 불평등한 게임이다.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국제관계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서 국가 간 게임의 승자는 핵심국가가 될 것이며, 패자는 주변국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업 간의 게임에서는 초국적 자본과 국내 대자본이 승자이고, 패자는 소수를 제외한 중소기업과 기층민중이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분명히 회생을 의미한다. 조화, 평화, 동시적 발전이라는 서구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허구로 드러난다는 이미 오래이다.

현재 한국과 같은 반주변 국가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핵심국과의 관계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자도 될 수 있고 패자도 될 수 있다는 '지배관계를 은폐한 핵심국의 이데올로기'만이 정부가 근면하게 제공해 주는 유일한 위안(?)인 것처럼 보인다.

임 광 빈

(정의와 감사-세계정치경제연구소 연구원)

과학 에세이 달 이야기...두번째 달의기원 및 운동 지구·당신의 마음에서...떨어지는 달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가장 알아야 할 것은 현상의 근원일 것이다. 그 근원을 통하여 부수적인 여러 것들을 세세히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난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달의 기원 및 운동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자. 이 글을 통하여 당신이 달을 보다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달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달은 과연 달의 근원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가? 현재 달의 생성에 관한 학설은 하나로 일치 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달의 생성을 분명히 규정 짓기는 어렵다. 몇몇 과학자들은 달이 지구의 한 부분이었다고 말한다. 우주에 떠돌던 어떤 한 운석 덩어리가 우연히 지구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때의 충격이 무척 컸기 때문에 지구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이 지구의 인력에 붙잡혀 지금의 달이 되어 버린 것이라는 학설이다.

이 충돌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태양계의 생성 속도가 하나의 열쇠가 된다. 태양계의 생성 속도가 매우 느렸다면 이 충돌설의 가능성은 커진다. 태양계의 생성속도가 매우 빨라 주위의 가스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커지는데 생성속도가 느리면 주위의 가스들이 태양계를 이루는데 많이 참여하게 되므로 그만큼 잔여 가스는 희박해 진다. 가스가 운석의 충돌을 방해 하므로 생성 속도가 빨라 지면 지구와 달의 충돌과 관련이 커지는 확률은 작아진다. 여기서 태양계의 생성 속도

가 빨라지면 왜 가스들이 그대로 남아 있을 확률이 커지게 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화학들이 태양계의 생성 속도가 빨랐다고 여기는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 충돌설은 그렇게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도 충돌설의 타당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면 태양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무척 큰 목성형 행성들이 가스들을 흡수하고 난 다음에 지구가 생성되었다는 것이 증명 되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학설은 우주를 떠돌고 있는 한 행성이 우연히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달이 되었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달의 구성 물질이 지구와 달리아 하는 사실이다. 물론 우연히 성분이 같을 수도 있었지만 그 확률은 극히 적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마지막 학설로는 달 역시 태양계가 생성 될 때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쳤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견들도 달이 과거에는 지구의 가까이 있었을에서 일치 틀 보이고 있다. 예를 들자면 달이고 있는 자동차를 가정해 보자. 만약 앞의 왼쪽 타이어에 펑크가 난다면 차체는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 것이다. 왜냐면 펑크가 난 쪽은 지면과의 마찰이 커져 상대적으로 오른쪽 타이어는 왼쪽타이어에 대해 속력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체는 밖으로 나가려 하는 원심력이 커지게 되어 왼쪽으로 기울고 동시에 밖으로 미끄러진다. 지구와 달에서의 운동이 바로 그러하

다.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이다. 물은 고체인 지각에 비하여 유동성이 크므로 지구의 자전을 서서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물통을 들고 원을 그리며 달려 보라. 안의 물의 운동에 의해서 속도가 감소 할 것이다. 즉 물의 변화에 액체인 물은 고체에 비하여 느리게 변화한다. 지구에서의 비탄성 충돌은 달의 중력 작용에 의한 지구의 해양과 고체 지각에 조석을 일으킨다.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해수는 천체를 가로질러 이끌리고 암석층은 상승, 하강 할 때 서로 비비며 미끌어진다. 이러한 마찰은 지구 자전 열로 서서히 전환되므로 지구의 자전의 주기는 점점 길어진다. 이 효과는 6만 5천년 동안에 1초 정도씩 하루 길이를 늘여 주므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달과 지구를 묶고 있는 인력에서 지구의 속도가 바닷물에 의해 느려지면 상대적으로 지구에 대해 달의 속도는 증가한다(왼쪽 타이어에 펑크가 난 자동차를 상상하라). 여기서 달은 지구에 대해 속도가 빨라진 만큼 원심력이 커지게 되고 달의 속력이 지구 탈출속도(2.4km/s)에 가까워 질 수록 달은 서서히 지구와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그림 2-2에서 알수 있듯이 달이 미래에는 태양계내에서 다른 행성을 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궤도를 형성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만약 과거의 지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달은 더욱 가까워서 지구에서 볼때

달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다 훨씬 움직였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가까이 있는 물체의 운동은 더욱 빠르게 보인다). 다윈은 달이 지구에 충돌해 가까워져 현재 지구와 달이 단일 물체로 있었을까 계산해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가지 않고도 과거에 하루가 더 짧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하루의 길이가 20시간을 약간 넘었을 것이고 1년은 4백28일이었을 것이다(아시모프의 '지구 과학 화학'중에서) -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유일한 이론은 아니다. 어떤 신호는 특정 계절 동안 더욱 활발히 탄산칼슘대를 형성해서 나이에 따른 연수를 셀 수 있다. 또한 밤보다 낮 동안 탄산칼슘의 생성이 많은 것도 있어서 매우 세밀하게 하루를 셀 수 있는 파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이제야 우리는 달이야기 첫번째 글에서 "달은 자그마한 지구"라는 말을 당신에게 말 할 수 있다. 달은 지구와 그토록 가까웠기에... 그러나 슬픈 사실은 바로 달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에서도... 당신의 마음에서도... 오늘은 달이 월경(24.1일(하천))이다. 그리고 그 위엔 웅장히 빛나는 목성(Jupiter)이 달과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정 성 옥

(자연과학연구회-천체분과)

컴퓨터이기는 지면관계상 한주 찾는다. (시화부)

HYUNDAI

'94 환경관리 모범회사

본격 고속 컴퓨터의 세계를 연다!

현대.PCI 컴퓨터

처리속도의 차원이 다르다.

- 32/64비트를 지원하는 가장 빠른 성능으로 VESA 로컬버스 방식의 단절인 CPU에 과중한 업무가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시킨다.
- 기본 1MB VRAM (최대 2MB RAM)을 바탕으로 훨씬 편리한 GUI 환경을 구현하고 PCI Video Chip 및 윈도우 가속기능으로 고해상도와 비디오 속도를 한층 향상시켰다.
- 스카시 II 방식의 HDD를 탑재하여 최대 110MB/초의 전송율을 자랑한다.

확장성이 다르다.

- PCI Fast 스카시 II 컨트롤러를 탑재하여 주변기기를 위한 최대의 확장성(8개)을 구현해 준다.
- 일반업무용 및 CAD/CAM 등의 용도에서 LAN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미래지향적 설계가 빛난다.

- 세계 168개 업체에 개발 및 생산단계에 있는 비스방사이다.
- 시스템의 확장 및 Upgrade 시 디스위처와 잠금 등의 변경없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Plug & Play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현대전자

서울시 중로구 전선동 66 (현대전자빌딩)
 유통영양부 : TEL. 398-4416~9
 기획영양부 : TEL. 398-4341~8
 ● FAX: 398-4371-7232 ● 고객센터: 791-0304
 ● 대전지점: 625-8222 ● 광주지점: 325-2025
 ● 울산지점: 61-3381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속도: 1.333333GHz
 CPU: 80486DX2-50 / 80486DX2-66
 RAM: 8MB
 HDD: 360MB
 LHD: 12.5.25"
 LCD: 25.1113M
 Video: 1MB / PCI local V.G.A.
 Keyboard: 103 KEYS / 표준
 Mouse: 2Buttons / 표준
 OS: MS-DOS 6.0 / Windows 3.11 / 세팅 2.0 / Super-NVme 2.0

속도: 1.333333GHz
 CPU: Pentium 60
 RAM: 8MB
 HDD: 540MB / 40000rpm
 LHD: 12.5.25"
 LCD: 25.1113M
 Video: 1MB / PCI local V.G.A.
 Keyboard: 103 KEYS / 표준
 Mouse: 2Buttons / 표준
 OS: MS-DOS 6.0 / Windows 3.11

◇ 자동차문화 이대로 좋은가

**체계적인 생산·소비 이루어져야
자가용 등교 자제도 한 방편**

문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자연에 대하여 대칭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문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문화"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동차 문화는 자동차의 생산과 소비에 의해 형성된다. 먼저 자동차 생산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즉 자동차는 철강, 고무, 합성수지, 유리 등에 의한 2만여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발달은 소 재공업, 기계공업 및 전자/전기공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을 유발 시켜 국민경제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은 80년대 중반부터 급속한 성장을 하여 이미 국민경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세계의 주요국가별 소형차 배기량 5백cc에서부터 1천4백99cc 까지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과 독일의 소형차 비중은 약 50%, 프랑스와 영국은 55%, 이탈리아는 63%나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93년 12월말까지 약 62.4%의 소형차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의 소형차 비중이 외국의 주요국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소형차는 파나나 런던보다 더 적다. 이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비해 차체를 너무 크게 만드는 이른바 과대포장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자동차의 소비는 구매와 판매에서 운송, 정비/수리, 주차 등 여러가지가 포함된다. 휘발유공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현실에서 대형차의 선호나 과대 포장된 승용차의 운행은 과소비 및 주차면적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과대포장된 승용차는 에너지도 낭비지만 엔진에 무리를 주게 된다. 이러한 엔진의 과부하는 불완전 연소에 의한 유해배기가스가 유발되어 공해와 더 나아가서는 교통사고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소비자들이 대부분 소형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소형차에 비해 배기량 2000cc 이상인 중형차나 대형차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승용차의 크기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거나 신분과 지위를 크게 부어 하지 않는다. 더우기 불수에 맞지 않는 허세를 이들은 부러

워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배기량 3000이상 손수 운전하게 되면 직업운전자로 보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 현실에서는 호텔이나 관공서에 출입할때 승용차의 크기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경향을 생각 할 수 있다. 비록 집은 전세로 살고 있지만 자가용 승용차부터 먼저 구매하려는 것이 요즘을 우리나라의 젊은층의 새로운 풍조이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작용되는 자기과시욕과 허세풍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혹시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서 연유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모두의 자진간절여와 열등감의 소치라고 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다. 이제 우리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더구나 도로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고 주차 면적이 모자라 모두가 쫓달때는 형편이 같은 대형차나 과대포장차가 우리 주위를 꼭대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급기야 우리 대학 캠퍼스도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Motorization의 급상승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모자라는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도 여기저기 모든 공간에 운동 차를 세워놓아 주차 마찰들이 벌써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야간의 경우 전문대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동국관 주변은 더욱 그러하다. 서울캠퍼스의 주차 수용능력은 몇 백대에 불과해 우리 모두가 자제하는 술기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등의 자제, 교수와 직원들의 10부제 운행의 적극 활용과 더 나아가서는 소형차 선호의 실천수법 등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 될 수 있다.

전진한 자동차문화는 생산과 소비의 양면에서 체계적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도 자동차의 구매와 판매에서 소비형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며 자동차 메이커와 정책당국은 그 책임이 크다 라는 것을 재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메이커, 정책당국에 의해 빛나갈 자동차문화는 건전하게 정착 될 것이다.

차수련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본사주간)

◇ '동계구름' 대학로 공연을 보고

**'여음'주최 자선공연한마당 참가
수익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음악의 기능에는 아주 여러가지가 있다. 사람을 안정시키고 때로는 흥분하게 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특이한 기능으로 어떤 단체나 모임을 널리 알리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음악, 그중에서도 함께 부르는 노래로 학교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동아리가 있다.

'동계구름' 창작음악동아리로 해마다 각 학교에 참가하여 수상을 하고 그들의 '존재함'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92년 인천대 도화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동계구름'은 동아리연합 '여음'에서 주최하는 '자선공연한마당'에 참가하게 됐다.

이미 지난 4월 29-30일 대학로에서 한차례 공연을 했고 오는 7월 인천 월미도에서 또다시 무대에 선다.

노래·작곡·키보드 오디션을 통해 신입생을 맞이하는 동계구름은 이번엔 18명의 새대원을 모집했다.

사람이 더 늘어난 이들은 함께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해 큰 걱정이었다. 학내 공간이 부족해 여태까지 이

리방을 내준 것이 자선공연한마당 준비에 큰 타격이었다고.

이번 자선공연한마당은 참가한 음악씨를중 하나씩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공연을 하고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여진다.

참가한 각대학 동아리와 일반노래모임은 모두 25개팀이고 이들이 선보인 노래도 장르 구별없이 자유로워 관객에게 큰 호응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프로는 아름답고, 아마추어는 더 아름답다.

(이유리 기자)

미술학과 소모임 전시회 '육영'

**과거·현재 접목해 방향성 제시
도시문명 비판 담아
"사회문제 집약해 표현해 네티"**



언제 올라가나? 동국관 5층을 향해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난다. 동국관 학생들에게 휴게실이자 미술학과 학생들에게 감상전시장이기도 한 그 공간은 차 한잔을 동반한 담소의 자리로 친숙한 곳이다.

이 곳에 지난 4월25일 하얗고 둥근 '석고덩어리'와 초록색 장승 등이 나타난 휴게실 분위기를 '우아'하게 만들었다. 바로 미술학과 소모임중 하나인 '육영'의 다섯번째 전시회가 바로 그것.

89년도에 '몸과 마음을 합쳐 정진한다'는 의미로 '육영(肉靈)'을 조직해 현재는 미술학과 3·4학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결을 다 단테라며 육영의 장(張)인 송지호(미술4)군은 말한다.

그러나 올 가을 정기전을 가질 계획이며 6월에는 풍문들이 '육영'타이틀로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가질 정도로 소모임 아닌 '소모임'이라고 자랑을 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인 작품은 지난 방파이후로 준비한 것으로 평면아름, 조각 석벽이다.

장충체육관 지하에서 아이티를 연서 제작했다는 '도시'라는 5개의 둥근 석고 작품은 전시장 중앙에

위치하고서 도시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그 옆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초록색의 장승과 여인이 지켜보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접목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진 '쓰러진 고인돌'은 향락의 상징인 네운을 업고서 자리하고 있다.

공간을 꼭 메운 조각작품만이 아니라 유리와 천을 뒤로 하고 있는 그림 또한 달동네를 소재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 탕화위주로 작품을 구성하는 고미술파트의 작품이 민화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미술작품, 특히 추상작품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느끼기 나름이죠"라며 작품을 설명하는 송지호군은 이번 전시회에서 추상 작품이 작은 것을 아쉬워 하며 미술작업으로서 사회문제를 집약시켜서 표현해 내는 '육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30일까지 계속된 '육영'전은 일상생활과 책과의 씨름에 접여 있던 학생들에게 작은 변화를 주었으리라.

(곽주영 기자)

달 하나 천 광 에

참생명의 주인공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은 것이다"라는 명구가 있다. 참 삶은 말이다. 이는 오직 건강만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과연 무엇일까? 흔히 말하길로는 마음과 육체가 잘 조화되어 명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갖가지

비법이나 비방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갖가지 건강식품을 비롯하여, 각종의 운동방법, 그리고, 기 수련과 정신단련 방법들도 적지않게 선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방법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단지 강한 육체를 쫓다 오래동안 보존하여 수명을 연장 하려는 것인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오래 산다고 해도, 한평생이 팔구십년을 넘어서기 어려우니, 수백년을 사는 동물이나, 수천년을 사는 식물에 비교하면 어필도 없고, 더구나 대자연의 수명에 비교하면 찰라생명의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몇십년 더 살려고 벌의벌짓을 다하여 자아가 함께 죄업을 보태는 일만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기야, 얼마동안을 살면 건강하게 살고 병들어 가족들에게 고통을 덜 시키려고, 건강에 힘쓰면 특히 나무랄 일만도 아니다. 다만 제 몸뚱이를 진정한 자기라고 잘못 알아서, 이것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사람들의 불행이나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고, 다른 생물에 대해 주는 피해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마구 날뛰는 괴락사나 문제이다.

생수가 몸이 좋다고 하니 멸칭한 논밭에 마구 구름을 뿜어서 누수(農水)에 영향을 주면서도 전혀 이랑곳 하지않고, 정력에 좋다면 벌의벌 희한한 생물들을 다 잡아 먹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마구잡이로 외국에서 수입까지 하여, 나라방신을 시키는 것도 예사이다. 이제 서울에는 흥터마다 약수터가 있고, 그 수질이 어떠한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너도 나도 물러든다. 또 두사람 이상만 모이면 무슨 계 모임이다 친목회다 하여 조직을 만든다. 우리들이 언제부터 이토록 조직을 좋아했는지 알다지도 모를 일이다. 하기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 조직이 없을 수 없고, 민주주의를 하려면 저마다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일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 주권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속에 끼 들어야 별말없이 살수 있다는 대중의 불안한 심리이다. 우리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되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교통망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지니게 된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늘 무엇인가 쫓기본 '마음'이 문제이다. 하기야 역사상 숭한 의절을 받았고, 천원자도 없는 나라가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날로 극심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니, 급한 마음이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음이 이제 자기 자신을 근원적으로 반성하여 중심을 잡아야 할 때이다. 선진국 문명에 들어섰다는 나라가, 어쩌서 해마다 보도를 억을 교차야하고, 만든 지 이십년도 채 안된 아파트와 다리가 무너져려고 하는가?

이제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일에 긍지와 자존심을 지니고 멀리 보아야 한다. 공자는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고 어느 선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무위진인(無位眞人)이 있다"고 하였다. 이제 우리모두 참생명의 주인공을 깨달아 주인공답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건강하게 사는 길이며, 또한 의식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 향 배

문과대 철학과 교수

문학단신

새로 나온 책

◆ 뉴욕 환타지아...본교 국문과 출신이며 현재 뉴욕 동창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경환동문이 쓴 칼럼집으로서 이주민들의 기쁨과 애환등이 담겨있다.
◇ 원균 그리고 원균...남해안을 여행한 주인공이 한 노인에게서 이순신과 원균의 새로운 관계, 원균의 새로운 면모, 역사적으로 역적이 된 원균의 한에 대해 듣게된다.
도서출판 여백 4월 5천원 공연 안내

◆ 바람을 타고나는 새아...풍물 굿패 매편에서 풍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분화가 아니라 통합으로서의 굿을 추구하여 풍물의 독자적인 예술장르로서의 전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91년 8월 16일 5월 8일까지, 흥익대원 창무 포스트 극장. 문의 652-2933
◇ 허재비늘이...폴란드 실험영국의 기수 타데우스 칸토르의 '죽음의 교실'을 재구성하여, '허재비늘이라는 시작하는 한국연대사 30년의 상황과 병렬하면서 진정한 의식에 대한 질문과 한국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재고에 대해 다루고 있다. 5월 5일부터 29일까지, 동승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763-12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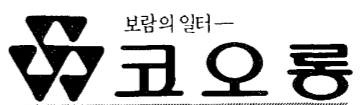
제목으로 무대에 올려진다. 폴란드의 시대상황을 4-19명에서부터

천 사람에게 물어 한 사람의 人才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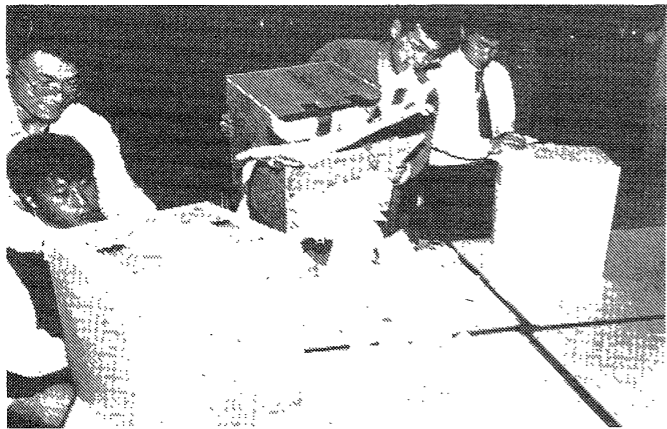
아망을 지닌 젊음들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는 곳, 바로 코오롱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재산은 없다! 이것이 코오롱의 믿음입니다. 지난 1954년 회사의 첫 삼을 뜬 후 40년이 지난 오늘, 첨단 섬유분야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기계·전자, 무역, 건설·엔지니어링, 화학, 보험, 유통 등 미래산업분야에서 21세기 한국경제의 뉴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코오롱. 코오롱 40년은 기술개발과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니다. 그리고 천 사람에게 물어 한 사람을 구하는 정신으로 꾸준히 인재를 키워 온 '인간투자'의 시간이었습니니다. 세계에서 코오롱만이 "실력과 성장성을 겸비한 드문 사람들"로 평판이 난 것도 바로 이같은 코오롱의 '인재제일주의' 때문이었습니니다. 국제화에 앞장서는 인재육성을 위해 큰 아망을 품은 친취적 인재들 등을,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는 일터. 각자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보람의 일터' 코오롱! 장차 한국경제의 동광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젊음의 아망과 투지를 마음껏 꽃피우고 싶으십니까?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당신의 '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10대 학복위원장 직접선거 논란

“회칙개정없는 투표 있을 수 없다” 일부 강한 반발



회칙 개정후 학복위원장 직접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찬반투표 결과 찬성 지지율이 93.3%로 나타났다.

제26대 총대의원회(의장=한정섭·독문4)가 실시하는 제10대 학복부위원장직접선거의 투표가 지난 2일부터 시작돼 오늘(4일)마감되는 가운데 각 자치기구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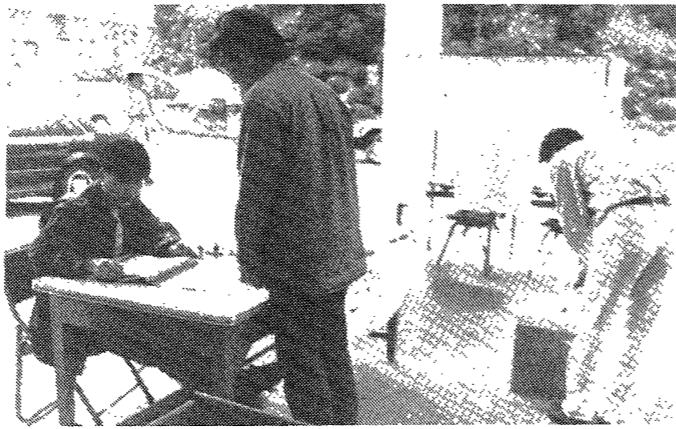
제26대 총대의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입학식(영영3)군이 단독출마한 학생복지위원장 선출을 위해 1차유세, 2차유세 및 공청회를 치루고 투표에 들어간 상태이다.

사범대, 이과대, 예술대, 경상대, 야간간과 학생회는 '학생회칙 개정

후 학복위 위원장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찬·반투표를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단과대별로 △불교대 46명 △문과대 121명 △이과대 193명 △법과대 17명 △사회대 20명 △경상대 248명 △농과대 125명 △공과대 361명 △사범대 413명 △예술대 164명 △야간간과 216명 등 총 1969명이 투표하여 찬성 1842, 반대 109, 무효 23표로 총투표인원 중 찬성 지지율은 93.3%로 나타났다.



찬반논란속에서 학복위원장 선거가 지난 2일 야간간과 투표로 시작했다.

또한 29일 문과대 학생회는 (1)총대의 유권해석은 적법하고 일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2)회칙개정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처며 내용있는 직선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선택투표를 실시하였다.

문과대 투표결과는 학생 219명이 투표하여 (1)안이 23표(10.50%), (2)안이 174표(79.4%) 무효 22표(10%)로 나타났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총투표 실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선거공고전 '학생회칙개정'에 관해 단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학생회가 이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파싸움 조차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대의원회는 "학생회칙개정과 학복위직접선거는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문제라 위원장직접선거를 강행할것이며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총대부의장과 법과대 대의원으로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대 학생회는 학복위직접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의했고 예술대는 사범대학 기간으로 선거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재배치위원회가동

부족한 학내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지난 4월 조성된 공간재배치연구위원회(위원장=송석구·철학)가 현재 7명의 연구위원으로 학내 공간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지만 남산 고도제한으로 인해 본교실정상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동국대학교 문화관 건립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건물 공간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재배치연구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생겨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내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지난 4월 조성된 공간재배치연구위원회(위원장=송석구·철학)가 현재 7명의 연구위원으로 학내 공간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4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열려

공관위 운영안·동국중흥큰잔치 기획안 인준

94학년도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가 정족수 1백명중 6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지난 3일 원흥관(102)에서 열렸다.

이번 학생대표자 회의에서는 △총노선 발전토론 △총학생회 집행부인준 △상반기 사업계획안인준 △동국중흥큰잔치 기획안인준 △공관위운영안인준 △총학생회 상반기 예산계획 보고 △동국발전위한 학생개혁회의 사업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인준된 집행부에는 △사무국장=김현인(철4) △기획부장=김주영(농생4) △총무부장=홍영미(농생4) △홍보부장=김남현(국교3) △체육부장=김동환(체교3) 등이며 청년동맹위원장인 위임장에 박은숙(독문3)이 인준되었다. 나머지 집행부, 문화부, 학술부, 연대사업부는 공석인 것으로 보고됐다.

복지사업공관위위원회 규정은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32명, 반대 15명, 기권16명으로 통과됐다.

동국중흥큰잔치에 대해 김현인사무국장은 "행사는 26일로 연기되었으며 4일 사무국장직선회의를 통해 구체적 입장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총결산보고에서 박현식(전기4)

총학생회장은 "방송사업보고서의 준비 미흡으로 총대감사기간중 대차보통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발전위한 학생개혁회의 사업보고에서는 그 역할에 관해 단위화자투를 총화해내고, 총장선거를 준비하며, 조계중시대의 관련 개혁회의와 연대해 재단의 구조적 모순 해결속도로 규정했다. 구성은 조사부에 불교대·공과대 학생회장을 두고 학내 재단체의 자료를 수집·규합하여 성취에 반영하는 한편 교복부의 문과대, 사범대 학생회장이 단 위교양을 맡게 됨을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복지위원장 선거에 관한 총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인장표명에서 한정섭(독문4) 대의원은 "방송 어떤의도도 진행하지 못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총운위를 보면서 작년에 치러진 총투표를 인정하고 직선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장원설치 서명운동

경주캠퍼스 제10대 총학생회(회장=이윤영·회계4)는 '교내미장원설치'를 위한 '여학생 서명운동'을 5월 첫주부터 총기간인 14일까지 교정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월초 실시한 교내미장원설

치에 대한 여학생 4백여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 80%이상이 '꼭 필요하다', '있으면 사용하겠다'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따라 총학생회는 학교측과 적극 협상중이다.

한편 교내미장원설치를 진행중인 총학생회측은 "학교측과 공간, 배수문제로 마찰이 있지만 타대학과 비교해볼때 우리학교 여학생 복지를 위해 꼭 성사시킬것"이라고 밝혔다.

직원노조 체육대회

직원노조(위원장=장운·학생처)는 '창립기념 체육대회'를 오는 6일 1시30분부터 체육관에서 갖는다.

경기종목은 배구, 농구, 발야구, 피구, 줄다리기, 제기차기 등이며 총무과와 노조 집행부를 진행위원으로 한다.

팀구성 방식은 오프런, 정진팀의 정배전으로 진행된다.

경주 총여 수직공예특강

제10대 총학생회(회장=이윤영·회계4)는 '수직공예특강'을 오는 5월 둘째주부터 6주간 주2회씩 여학생유계실에서 선착순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95학년도 입시 요강 확정

입시 1월9일, 특차비율 1.7% 국어논술 실시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과)는 95학년도 대학입시일을 내년 1월9일로 결정했다.

모집비율은 특차 1.7%, 전기 98.3%이며 전형요소 비율은 △인문·자연계=내신성적 40 수능시험50 필답고사 10 △예체능계=내신성적40 수능시험30 실기고사30 △사범 인문·자연계=내신성적40 수능시험40 필답고사10 면접고사15 인성검사15 △사범 예체능계=내신성적40 수능시험20 실기고사30 면접고사15 인성검사15등이다.

특차모집 대상학과는 불교, 국문, 영문, 법, 경찰행정, 경제, 정보관리, 전자공, 건축공, 컴퓨터공, 한의예, 의예 등 12개학과이며 한의예·의예 지원자는 수능시험 동일계열 성적 상위 2% 이내, 나머지 10개학과 지원자는 수능시험 동일계열 성적 상위 6% 이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별 고사는 예체능 및 주특과 퍼스를 제외한 전학과 지원자를 대상으로 국어(논술)필답고사를 실시한다.

제10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전노대주최로 35년만에 공식부활

'제104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가 지난 1일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동대표=권영길 등 4명 이하 전노대)의 주최하에 본교 대운동장에서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수도권지역 노동자와 학생 2만여명은 식전행사를 마치고 개회선언과 함께 분행사에 들어갔다.

권영길 전노대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노동자의 날의 이름이 아직도 근로자의 날에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현정권이 노동자의 정신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계급적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하고 "노·경총 밀실합의를 분쇄하고 94인투를 승리로 이끌며 나가며 하반기에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법 개정에 우리의 투쟁력을 집중시키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UR국회비준 저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UR국회비준 저지, 재협상 촉구 노동자 총투표 실시 △노동자들의 농촌활동 적극참가 △노동자 통일운동 전개등을 결의했다.

또한 대회 결의문에서 "관공어음 단체인 노총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강력한 민주 노총의 건설과 해고 노동자 복지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회를 마친 노동자, 시민, 학생들은 대학까지, 평화행진을 갖고 노동약법철파, 어음노총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대학로 마로

내에 공원앞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오후 9시쯤 자신해산했다.

'영남지역 세계노동절기념대회'가 지난 4월30일, 5월1일 양일간 부산대, 부산역광장에서 각지역 노동자단체, 학생시민등 약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 첫째날인 30일은 부산대신축 학생회관에서 오후8시부터 12시까지 선포식, 문화행사, 질서유지대결식 및 대동놀이로 진행된 전야제를 시작으로 대회사와 지의와 박창무열사를 비롯한 노동열사에 대한 추모의 빛을 기린 자리였다.

본대회는 1일 오전9시 부산대운동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전11시 부산역광장에서 각지역, 부문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후1시부터 노동의례, 내빈소개, 대회사, 연대사, 대회진행보고와 보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후3시부터 부산역광장을 출발해 남포동 부영극장앞까지 시가행진을 통한 세계노동절의 대시민홍보전을 벌였으며 오후5시경 해산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감했다.

올해 노동절은 35년만에 공식부활됐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으며 최근 대규모 사업장노조들이 한국 노동절을 맞아 결의함에 따라 이번 노동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민주노총건설의 움직임에 노동자들이 총투쟁할 것을 결의한 자리이기도 했다.

회전무대

노동자를 위한배려

○...며칠전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던 날 본교 교정은 학교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 할 수가 없었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제104주년 세계 노동절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단체와 대학원이 참가한 가운데 잘 치러졌지만 각 단체와 대학에서 제작한 팸플레트로 온 대학내가 쓰레기장으로 변했다고

이를 보고 있던 한 학우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노동자인데 이 분들을 위한 작은 실천 하나도 못하면 어찌 큰 일을 해낼꼬?"라며 한마디

수행의 길

○...은방글 정각원에 걸려면 마스크, 손전등 호신술이 필수

다음이나니 정각원에 가가워 해산 소문동장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길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또 소문동장을 지나가는 학우들은 차들이 지나가며 일으키는 먼지를 마시기는 물론, 밤이되면 등이 하나도 없어 앞을 보기 어렵다고

더욱이 야구를 하다 날아오는 공에 맞아 부상을 당하기까지 한다는데

이에 학우 한마디 "정말 수행의 길이 멀고 어려운 것인가?"

그림의 떡

○...10%할인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데

다음이나니 은방글 도서관 매점의 "과자류에 한해서 10%할인 판매합니다. 반드시 거스름돈을 받아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바빠서 계산할 때 애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또한 학생회관 매점은 예초부터 10%할인을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본 회전문마대 한마디 "그림의 떡 먹는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허물 벗기

○...은방글 교내가 가뜩이나 잦은 공사로 미관도 좋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학교건물들도 한류하고 있다

일어본쪽, 도서관, 한의대 건물지붕이 오랜 풍파를 견디느라 도색이 벗겨져 얼룩덜룩 드러난 회색시멘트가 학교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교내의 미관에 아랑곳 하지않는 학교측에 대해 본 회전문마대 한마디 "조계중 버리가 벗겨져는 마당에 본교건물마저도 허물 벗어버리기에 동참하고 있나보죠?!"

불교대 학생회주최 '불교도 주간'

"불교자주 의식을 심화시키는 계기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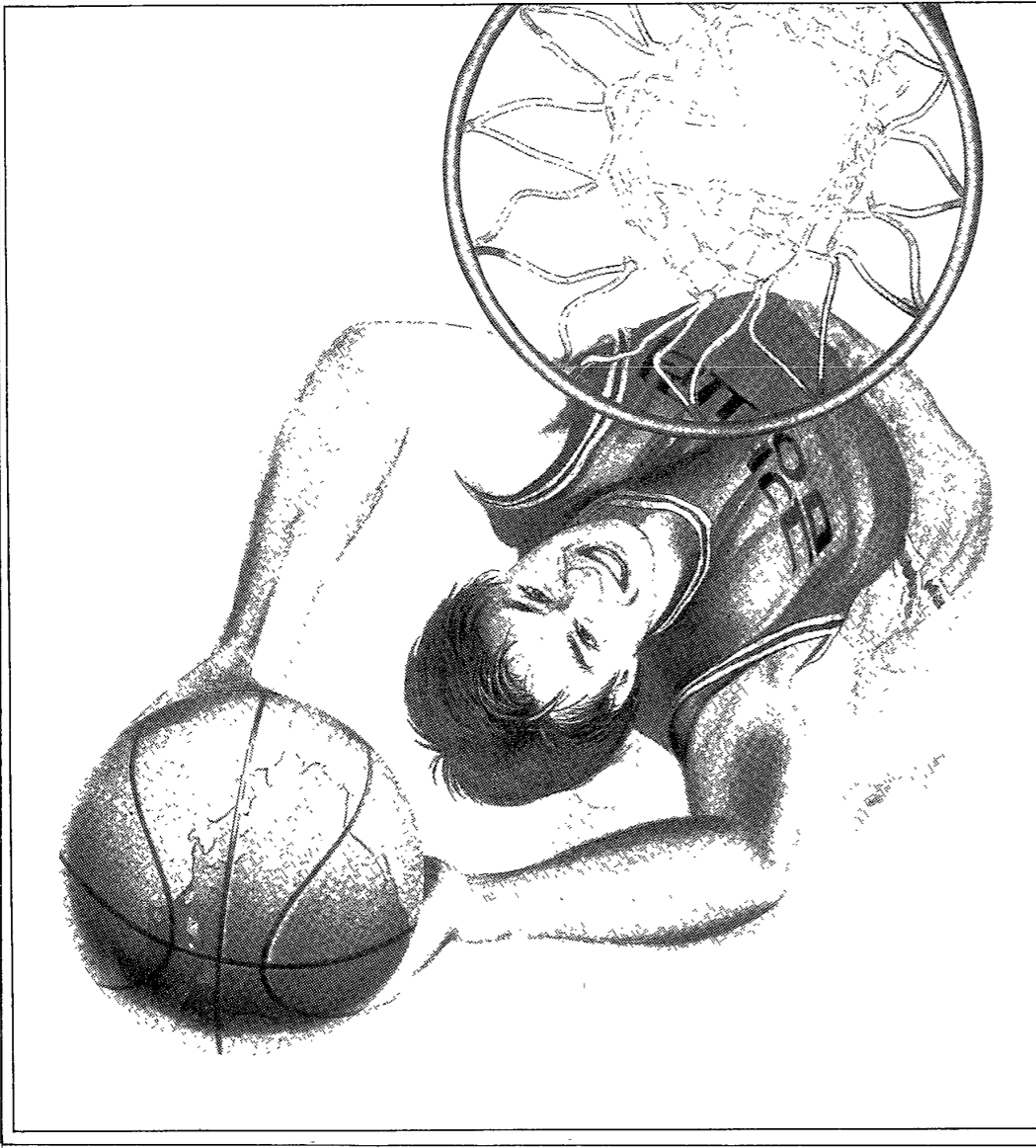
불교대 학생회(회장=최정현·인철4)는 불교도 주간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지선스님 강연회와 체육대회 등의 불교도 주간 행사를 갖는다.

불학생회장인 신동훈(불교4)군은 "이번 사업의 목표는 학우들의 불교지주회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불교도 주간을 통해 보다 안정화시키고 불교자주의 의식들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행사내용은 △9일=불교도 주간 선포마당 본관앞 오후5시 △10일=불교대 공부랑 평화집안식, 지선스님 강연회, 불상앞 오전11시 △11일="종단개혁선사와 불교자주회를 열원하는 법불교대인 한마당'체육대회 불교도 주간을 통해 보다 안정화시키고 불교자주의 의식들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불교대 학생회(회장=최정현·인철4)는 불교도 주간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지선스님 강연회와 체육대회 등의 불교도 주간 행사를 갖는다.

불학생회장인 신동훈(불교4)군은 "이번 사업의 목표는 학우들의 불교지주회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불교도 주간을 통해 보다 안정화시키고 불교자주의 의식들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세계를 향한 파워 덩크슛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냉철한 세계시장— 세계의 경계를 주름잡던 어제의 강국도

오늘은 더이상 변화를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곳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주)금강 세계적 명성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완벽한 시공— 금강종합건설

이들이 바로 더 넓은 세계시장을 바라보며 철저한 인재양성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세계는 바로 우리가 누벼야 할 무한한 코트— 금강·고려가 뛰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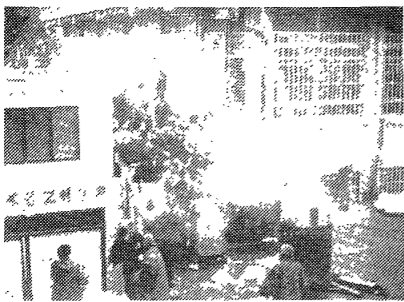
▲ **출사 금강** ▲ **고려화학** ▲ **금강종합건설**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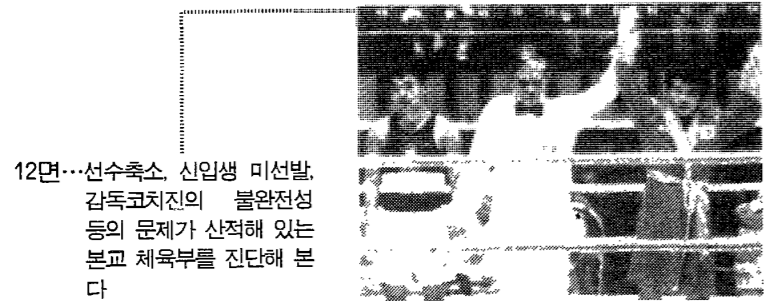
동대신문

개교 88주년 기념 특집호

지/면/안/내



10·11면...석림회 부회장인 일미스님이 제도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서향동의 폭력과 검찰·법무부까지도 인다물고 있는 정권의 비리를 동국인에게 폭로하고 남은 의혹이 풀리기를 호소하고 있다



12면...선수축소 신입생 미선발 감독코치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본교 체육부를 진단해 본다

동국의 필연적 '존재함' 인식할 때

현대학문·불교 접목 선행해야

이사장 치사



오늘의 명문사학을 지켜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동국은 근 한세기를 바라 보지만 21세기 첨단과학과 교육개발시대, 즉 무한경쟁시대를 맞으면서 본질적으로 개교당시와 큰 차이없는 사명감을 또다시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국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할 확실한 위상을 세우는 일이 보다 시급합니다. 본인은 그 해답을 한국불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할 때, 우리 동국에게는 가장 한국적이라 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후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대학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 선진학문을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외국에서 한국학을 배우러 온다면 필연코 우리 대학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학문수준을 높이고 연구활동을 심화시키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한국학의 토대가 되고 있는 불교를 각 영역별로 현대학문과 접목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동국은 지금 개교100주년을 앞두고 교육시설 확충과 대학의 특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재단으로서도 대학발전을 위해 분대 기능인 연구, 교육, 봉사차원 높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는 인화와 창의가 중요함입니다. 동국발전을 위한 건설적 제안이 있으면 학교당국에 건의하고, 나아가 재단, 동문, 재학생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각자의 사명과 책임을 다같이 다시 다짐합시다. 앞으로 오늘 본교 발전을 위해 한걸음 걸으시어 30년, 20년, 10년의 장기근속 표창을 받으시는 교직원과 특별 연구 및 공로표창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치하를 보냅니다. 아울러 모든 동국가족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동국 대학교가 더욱 도약, 발전하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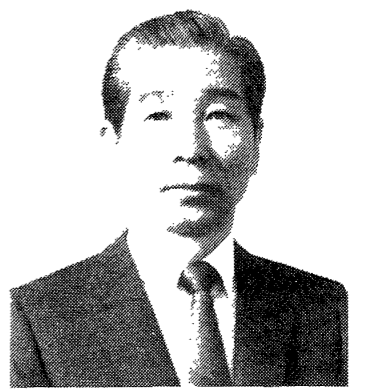
이제 교육구국의 숭고한 이념으로 성장 발전해온 모교가 개교 여든여덟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여든 여덟개의 성상을 쌓아 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건학정신을 교육과 연구에 구현해서 명실상부한 민족의 명문사학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영재를 배출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습니다. 전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빛나는 역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개교 88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각개인의 무한한 그리고

이사장 오낙원 합장

축하·자성 함께 하는 자리돼야

"동국중흥에 잠재력 발휘해야 할것"

총장 기념사



아울러 1995년의 대학종합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얻기 위하여 거고적으로 대비하면서 교육의 내적충실을 거듭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민족의 명문사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약진 동국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 발족한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와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당면사업들을 기획,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애교심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간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동국중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동국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약진 동국 건설의 대열에 앞장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장기 근속한 분과 표창받은 분들께 감사 축하와 감사를 드리고 영원한 마음의 고향 동국의 발전과 동국가족의 행운이 부처님의 가호아래 성취되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민병천 합장

동창회장 축하



존경하는 오낙원 이사장님, 민병천 총장님 그리고 내의 귀빈여러분과 재학생 여러분! 오늘은 10만 동국인 모두의 영원한 고향

건학정신 교육·연구에 구현

2천년대 나라 주축으로 서야

이제 교육구국의 숭고한 이념으로 성장 발전해온 모교가 개교 여든여덟돌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여든 여덟개의 성상을 쌓아 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온 건학정신을 교육과 연구에 구현해서 명실상부한 민족의 명문사학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영재를 배출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 왔습니다. 전애하는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빛나는 역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개교 88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은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각개인의 무한한 그리고

치열하기 그지 없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모교 동국대학교 역시 그 무한 경쟁의 한 복판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보다 찬연한 동국의 내일을 다짐하고 결속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재단과 학교, 총동창회가 삼위일체로 단결하여 동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동국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 2천년대 이 나라의 주축으로 바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 동국의 역사를 더욱 더 빛내는 길인 것입니다. 지난해 부터 개교 1백주년 사업이 시작

되어 기금마련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진실로 우리모두가 개교 1백주년 기념식 전에 동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물음에 부끄럼없이 자랑스럽게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다는 내일이, 내일 보다는 모레가, 94년 보다는 95년이 95년보다는 96년이 조금더 발전 할 수 있게끔 기우어 나가자면 우리 동국은 분명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88개의 성상을 쌓아 오면서 모교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빛낸 많은 선배 동문님과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축하사에 가겠습니다.

총동창회장 황명수 합장

개교 100주년 사업기금 기부자 명단

('94.3.17~'94.4.30 접수분)

- △김대중(경영대학원)=70만원
△서화량(불교대학원)=20만원
△정관진(불교대학원)=50만원
△불교대학원 3기 학생회=20만원
△양재순(금보암)=50만원
△박순선(홍운암)=50만원
△정환영(행정대학원)=30만원
△이승호(산업기술대학원)=50만원
△김정호(불교대학원)=1백만원
△김옥수(불교대학원)=20만원
△문영일(前한국전력 부사장)=1백만원
△신순애(불교대학원)=50만원
△정수복(불교대학원)=20만원
△홍승해(불교대학원)=1백만원
△강성원(불자)=1천만원
△대한교육보원동문회(회장=이성희)=4백만원
△김삼섭(불교대학원)=10만원
△이남영(행정대학원)=1백만원
△이상원(행정대학원)=50만원
△이희남(행정대학원)=50만원
△강성훈(산업기술대학원)=50만원
△여익구(행정대학원)=1백만원
△하과자(불교대학원)=10만원
△김대영(불교대학원)=50만원
△윤순숙(불교대학원)=20만원
△김진문(동문/신선약품사장)=1천만원
△김성용(불교대학원)=1백만원
△황영운(불교대학원)=50만원
△원소연(불교대학원)=50만원
△허도환(교육대학원)=10만원
△김도경(동문/동덕여대 교수)=20만원
△최석전(대학원)=50만원
△조영자(불교대학원)=50만원
△이영태(불교대학원)=50만원
△유현목(동문/前연역 교수)=1백만원
△함영필(경영대학원)=1백만원
△이대성(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류재중(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김진문 경영학과 동창회장 1천만원
공화춘 동국약품 대표 1천만원
행정대학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대한교육보험 동문회 4백만원
이순용 법학과 교수 3백만원
불교대학원 3기 학생회 2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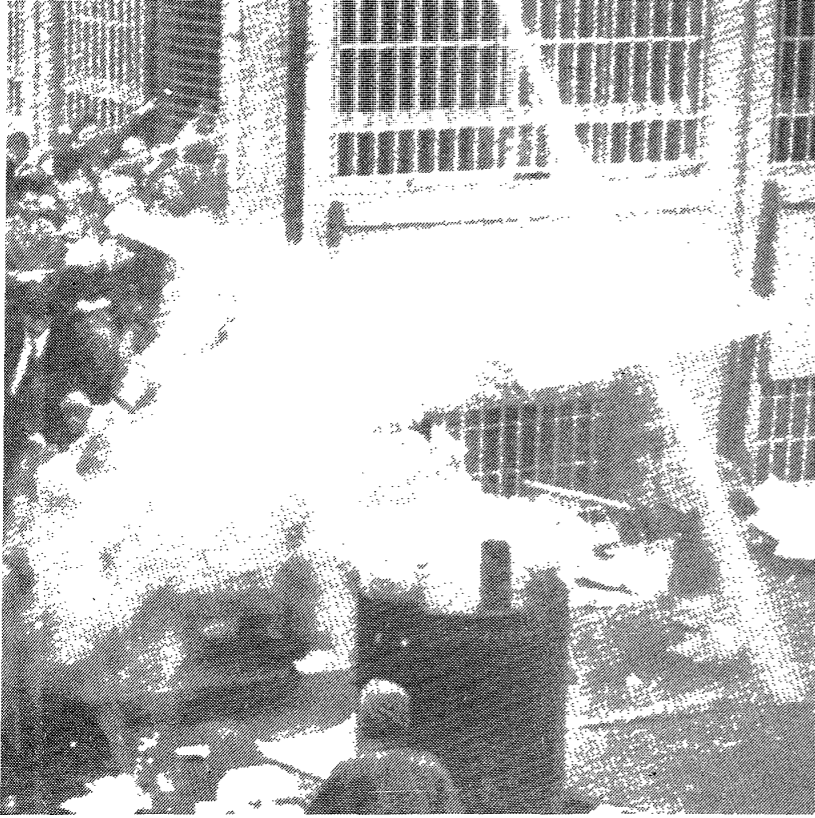
- △김대수(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김충섭(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장태용(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공인주(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신정수(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송재성(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서화량(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박성봉(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김영봉(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최재인(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김희열(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허현행(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리영순(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이말자(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설기준(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조복숙(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황옥조(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목영규(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주영태(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성철일(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김상덕(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진경희(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전병학(불교대학원)=57만9천원
△윤경문(불교대학원)=50만원

- △황성례(불교대학원)=50만원
△전남원(불교대학원)=50만원
△주기재(불교대학원)=50만원
△노이중(불교대학원)=26,960원
△김재진(경영대학원)=5백만원
△박명근(경영대학원)=1백만원
△이효재(불교대학원)=50만원
△박제준(불교대학원)=2십6만4천9백60원
△서석희(불교대학원)=10만원
△신명옥(불교대학원)=10만원
△행정대학원=1천만원
△김 한(영문과 교수)=1백만원
△염기현(컴퓨터공학과 교수)=1백만원
△조훈영(물리학과 교수)=50만원
△이순용(법학과 교수)=3백만원
△권기중(불교학과 교수)=1백만원
△배상현(한문학과 교수)=1백만원
△채대식(국제경제학과 교수)=1백만원
△박준원(산업공학과 교수)=1백만원
△이금석(컴퓨터공학과 교수)=1백만원
△오국근(영문학과 교수)=1백만원
△홍영식(컴퓨터공학과 교수)=1백만원
△차수현(영문학과 교수)=1백만원

- △김규민(역경원 업무부장)=2백만원
△박동기(100주년 사업본부)=1백만원
△이시우(교육방송국장)=1백만원
△신관호(100주년 본부사무장)=50만원
△이광구(행정대학원 교학계장)=50만원
△한문우(경영대학원 교학계장)=50만원
△신기훈(기획과)=30만원
△김진영(후생복지 계장)=50만원
△허 찬(보건의소 계장)=50만원
△권용범(총무과장)=1백만원
△박승중(기획계장)=50만원
△리병욱(산업기술대학원 교학계장)=50만원
△오광진(이부대학 교학계장)=50만원
△함주환(정보산업대학원 교학계장)=50만원
△김중애(100주년 사업본부)=20만원
△박정훈(학술부 계장)=1백만원
△김해배(장학 계장)=50만원
△이익성(동대신문사 편집국장)=50만원
△박광호(불교대학원 교학계장)=50만원
△김중백(총무계장)=50만원
△조경진(체육계장)=50만원
△임영순(100주년사업부장)=50만원(추가분/합 1백만원)
△조재호(전자계산원장)=1백만원
△이익화(학술부)=30만원
△윤용규(비서실계장)=50만원
△김종진(교무과장)=50만원
△박종환(교육대학원 교학부장)=1백만원
△김경진(대학원 교학계장)=50만원
△조원생(교육대학원 교학계장)=50만원
△최정훈(상경대 교학계장)=1백만원
△이영철(재단사무과)=30만원
△박현식(재단사무과)=20만원
△김재규(재단사무과)=20만원
△최광재(대학원 교학과)=30만원

소계 1억 3천 26만7천 9백60원(1백43명)
누계 6억 59만 5천 9백10원(7백91명)

혁명정책은 용두사미



위한 나머지 김영삼정권은 폭력방지를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연루설에서 발단을 찾을 것 하나 없었다 점 남겼다—언론

육부장관을 시켜서했다. 김계 내노라고 하니 박씨를 내놓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최형우 내무부장관을 즉각 파면시켜 백담사가 아닌 흑담사로 보내야 한다.

아 언론이여

불교개혁의 투쟁은 너무도 외로웠다. 동국에 석립회를 비롯, 중앙승가대, 전국강원, 선방수좌 등 2천 5백여명(조계종승려 약 23%)의 스님들이 조계사에 모여 불교개혁, 불교의 자주화를 외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언론의 편협성이었다. 언론만큼은 우리의 순수한 의지를 대변해 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2천5백여명의 스님들의 의지를 송두리째 땅에 쳐박고 말았다. 경찰이 서원장을 노골적으로 비호함을 보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젊은 학인스님들을 증권을 뺏으려는 자로 매도한 것이다.

동국인이여!

과거 독재정권타도를 위해 맨몸으로 투쟁한 2백만 학우들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싸웠던가? 2백만 학우들이 대통령권좌를 차지하기 위함이었던가? 끈끈한 정권과의 유착을 끊으려고 위법방구의 정신으

로 투쟁한 230대 학인스님(법종단개혁추진위원회)들을 언론은 중권다툼의 무리들로 매도하고야 말았다. 불교역사에 언론은 크나큰 오점을 남기고야 만 것이다.

신문지상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나온 관련화면을 보라. 어느 한 군데라도 범종추스님들이 전경들에게 무차별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인 곳이 있었는가? 방패와 몽둥이에 맞아 쓰러져가는 20여세 어린 비구니 스님들을 찍은 곳이 있었는가? 전경의 방망이에 머리를 맞아 승복에 피가 남자한 채로 실려가는 스님의 모습을 담은 적이 있었는가? 불교자주화의 몸부림이 공권력의 힘아래 무너져가는 아픔에 함으로써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스님들을 화면에 넣은 적이 있었는가?

폭력배 난입마저 찍지않고 먼 산 바라보다 국민 여론에 밀리자 사후 범종단개혁추진위원회에 의뢰, 자료화면을 빌려 보도한 것이 자급의 언론들이다.

카메라 화면을 카메라맨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악마와 천사가 구분지어진다. 언론이 독재정권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투쟁을 했던 학생들을 폭도로 매도, 국민에

게 새겨시킨 과거를 돌켜보라. 그들은 또한 폭력방지를 위해 무차별 폭력을 쓰는 경찰을 천사로 만들고 방패와 몽둥이로 무장한 경찰에 맨몸으로 대항하다 쓰러져간 2천 5백명의 비구, 비구니스님들을 악마로 만들었다.

언론은 불교계가 상당히 만만한 모양이다. 조계사 사태만이 아니라 4월 29일 최형우내무부장관과 경찰간부를 검찰청에 고발한 것까지도 기를 쓰고 축소보도하기에 급급하였다.

한국언론은 정권의 압력을 거부하고 정의의 편에 서야한다. 몇몇 썩은 권력자와 거저서 허우적대는 다수의 무력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유일무이한 불교개혁

이러한 난관속에서 한국불교는 일단 개혁을 성공시켰다. 타락한 양상이 돌출함에도 개혁이 불가능했던 것은 썩은 환부가 더 굵으면 어찌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었다. 담장 실을 짚는 아픔이 크더라도 새로운 도약을 확산하기 때문이었다. 속속히 밝혀지는 일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사회를 계도할 마지막 보루이고, 그것도 한민족의 정신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교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일찍부터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정권불교를 떨쳐버렸어야만 했다. 그들의 부패한 손이귀를 떨구어 내어야만 했다. 이제 참된 호국, 호민불교에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범종추가 이룩한 불교개혁은 너무나 값진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이루어내지 못한 개혁을 이룩해 낸 것이다. 더구나 개혁의 간판이었던 이회창 극구총리를 경질한 비개혁적인 정권의 비호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불교자체의 힘으로 정권과 정면대결을 통해 성취한 것이다. 백여명의 스님들이 더치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도 외로운 투쟁을 꿋꿋이 버티어 온 것이다. 한국불교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정권유착에서 벗어나 불교본연의 중생구제라는 명실공히 신대승불교운동을 일으킬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개혁바람이 조계종단 유일의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불어 90년의 성상을 재충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동국인이여! 그러나 이번 사태에 해결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

첫째, 80여 정치권 선거자금 유용사건을 검찰은 끝끝내 감추려하고 있다. 청문건설 조기현세의 수표추적조사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도 부축해서 국방부, 법무부까지도 입을 꼭 다물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는 이번 상무대비리료를 아예 은폐조작하고 있다. 뒷물이 맑지 않으니 독포수도들이 온전하겠는가?

둘째, 폭력배의 경찰연루 사실이다. 이번 조계사 폭력사태는 이젠 승려가 아닌 서광룡(서의현)과 경찰이 공모하여 일으킨 것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

를 기피하고 있다. 언제까지 경찰이 폭력배와 한통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셋째,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총무원 4층에 있는 불교계 관련 서류를 백골단이 모두 태운 사실이다. 범종추 스님들은 총무원 3층이상은 올라가지 못했다. 4층에 있던 백골단이 불교계 관련서류를 전부 태운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근래에 밝혀진 안기부직원 및 고위간부들의 뇌물수수 증거인멸키위해 급히 하루 밤사이 태워버린 것이다.

네째, 서광룡(서의현)을 구속수사하지 않는 사실이다. 혈루의 참회는 고사하고 조계종 탄생을 누가 원하지도 않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파렴치한 강제 서광룡을 끝까지 비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영삼 정권이 무슨 약점이 있기에 그를 금영어리처럼 애지중지하는가? 모든 사실을 은폐키 위해 서광룡씨를 해외로 도피시킬지도 모른다. 이것이 과거 독재정권의 만사해결책이었기 때문이다.

위 세가지를 불자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끝끝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하와중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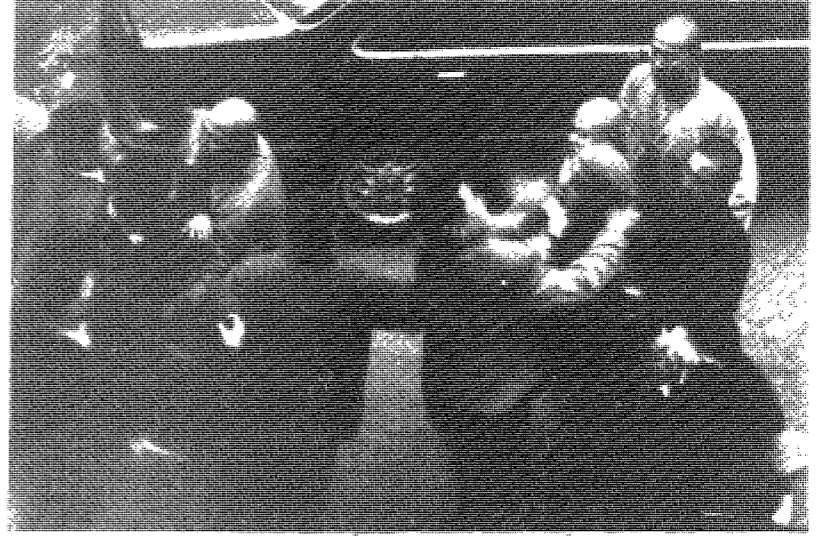
이번 사태를 통해 김영삼정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개혁정권이 아닌 보수여로의 전향정권인 것이다. 단적인 예로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는, 법에 철저하고, 소신이 강하고, 대쪽같으며, 강한 이회창 총리를 경질함만 보더라도 명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독재정권이 해왔듯이 불교내의 탈정권화 의지를 방해하고 억눌렀으며, 세력을 형성시켜 불교의 자주화 의지를 약화시키는 민행을 저지른 것이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은 결국 용두사미인 셈이다.

불교는 이번 자체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정권으로부터 자주화를 선언했으며 이번 김영삼정권의 불교탄압에 대하여 법난으로 규정하고 최종시한 4월27일까지 김대통령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또다시 불교계를 무시하고 말았다. 전국으로 퍼지는 불교계의 반정부 투쟁이 가속화됨을 그저 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에 큰 상처를 입히고서 김영삼 정권의 앞날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벌써 그는 UR과 이회창 총리 사임, 그의 아들 김연철씨의 정치성 뇌물수수등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지않는가? 집권 1여년만에 최대의 위기라고 자인하고 있다.

부처님이 계신 법당에 군화발로 들어와 최루탄을 던사 스님들을 구타연행하는 민행을 무엇으로 참회하겠는가? 이번 조계사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정총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진상을 공개사과하고, 조계사에 폭력배동원 및 공권력을 남용한 책임을 물어 최형우 내무부장관을 즉각 사퇴시켜야 하며 폭력배와 작당한 종로경찰서장 이하 간부들의 파면이 꼭 관철되어야 한다. 이것이 빠른 시일안에 관철되지 않은 한 전국 불교신도들의 준엄하고 매질찬 철퇴를 면치 못할 것임을 심히 우려하면서 이 글을 회향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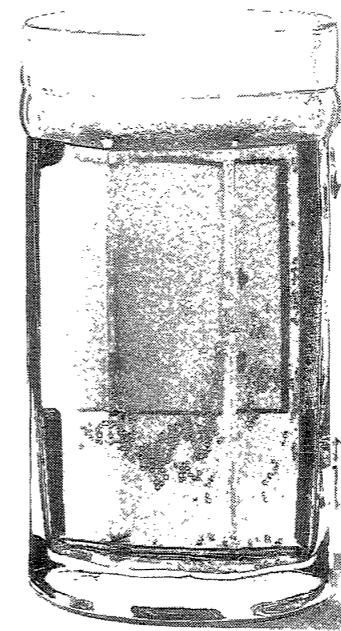
소주세대와 맥주세대간의 거리를 좁히자!

청년중역회의와 중역현장체제도 통해 세대의 조화를 이룩하는 「현대자동차」

“하루에 한번씩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자!”
- 여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청년중역회의 (일명 유니어보드)’와 ‘중역현장체제도’였습니다. 대리들이나 사원들이 직접 중역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기탄없이 쏟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이 안전들은 빠짐없이 사장님에게 전달되어 현실 가능한 것들은 직접 반영되기도 하죠. 반대로 중역들은 20년전 사원의 자리로 되돌아가 생산현장에서 직접 일해보기도 하고, 각 부서들의 말단 자리에 앉아 그들의 고충을 직접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입니다.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지있게 받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총동창회 정기이사회 “근시일내 장학재단 설립할터”

총동창회 제56차 정기이사회가 지난달 26일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황명수 동창회장과 최형우 내무부 장관을 비롯한 장·재계 인사 1백4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93년도 사업결산 보고, 94년도 사업계획 보고등을 가졌다. 94년도 사업계획보고에서 총동창회는 올 한해를 동국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그 세부계획으로 총동창회 자립운영기반 확충, 장학재단 설립, 조직강화사업, 재학생 지원 사업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 황명수 총동창회장은 “근시일내에 장학금 3억원이상을 조성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해 이를 구체시켰다.

다지는 해로 정하고 그 세부계획으로 총동창회 자립운영기반 확충, 장학재단 설립, 조직강화사업, 재학생 지원 사업등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 황명수 총동창회장은 “근시일내에 장학금 3억원이상을 조성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해 이를 구체시켰다.

불교문화 연구원 해외포교 미국, 일본등 12개국에 서적 보내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서윤길·불교학)은 지난해 영문판으로 간행한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The history and culture of Buddhism in Korea)'를 세계 12개국 1백여곳에 보내는 사업을 완료했다. 미국, 일본 등의 각 주요대학이나 연구소에 한국불교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사업을 하게 됐다는 불교문화연구원 박경준 연구원은 “이번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가 올바르게 알려지고 이해되었으면 한다”며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연구원은 “이번 계기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가 올바르게 알려지고 이해되었으면 한다”며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불교문화연구원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개방화사대의 민족문화와 불교’란 제목으로 기념세미나를 오는 13일 오전10시 동국관(L401)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해방동문 과학상 수상 인슐린 의약 전달체 개발 업적

본교 화학과 7회 졸업생인 이해방 (화학연구소 생체고분자 연구실장)박사가 ‘대한민국 과학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국의 노벨상격으로 이 박사는 ‘인슐린 의약 전달체 (Insulin Drug Delivery System) 개발’ 의공생체 고분자의 개발연구 업적으로 수상했으며 특히 이중 ‘인슐린 의약 전달체 개발’은 국제특허를 냈다. 시상식은 과학의 날인 지난달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자신 손해정여사의 사리탑 주변 조경을 위해 수목을 기증해 왔다. 학교당국에 따르면 금강경독송회의 기증수목은 선향, 영산홍등 1천여주로 시가 3천2백여만원정도이고 기증수목 골취 및 식재비등의 이식공사비까지 더하면 5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식수 기증은 그동안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이 매년 손해정 여사의 제사일(음 5월19일)에 모여 조경경비를 모금하던 중 이루어졌으며 “탑주연을 조정해서 설립자의 정신이 계속 발휘되어 동국발전과 불교의 증흥에 이바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강경 독송회 수목 기증 금강경독송회의 박관실, 필도희 부부회원이 본교 불교장학회 설립

모교방문행사 치류

교무처 (처장=정병조·국민윤리화)는 지난 4월29일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교방문행사를 치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각고교에서의 본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스승의 노고에 대한 사은의 목적으로 시작한 이 행사는 서울 시내 소재 고교중 다수지원 및 다수합격자를 낸 1백54개교 대상이다. 각학교별로 신입생 2명이상이 학교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신입생 명단, 95학년도 입시요강 및 입학설명서분포표를 가지고 방문하며 지

방이나 기라고고 졸업자, 재학생들도 학생자로 신청하면 동참할 수 있다.

고분자학회 발표회

한국고분자학회 (회장=한만정 교수)가 지난달 15일부터 16일 양일간 6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대학원에서 열렸다. 이 학회에는 학술연구논문 2백여편이 발표되었고 초청특별강연으로 본교 성용길 (화학)교수의 ‘의료용 고분자 개발연구’와 동경공대 Akaike교수의 ‘세포안식 고분자 설계연구’, 구주대학 Kajyama교수의 ‘거대분자회합체의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었다.

체육부학생 선수축소등에 반발 학교당국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



◇몇년전만해도 체육부는 동국의 자랑거리였다. 다시한번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동문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동학의 체육을 살리자!” 체육실측의 운동선수 축소와 신입생 미선발, 감독코치의 불완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체육부 선수들이 체육실 김대건 (체육교육)실장의 사퇴와 체육부의 정상적 활동을 위하여 학교당국이 대책을 수립할것을 요구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레슬링부, 권투부등 5개의 운동부서로 구성되었던 본교 체육부는 축구부, 야구부 70여명의 선수와 그의 운동선수 20여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선수들은 4년동안 체육특기자로 학비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고 합숙소인 금강관에서 기량을 닦는다. 레슬링부 김우근 (무역 4)은 “개인종목인 레슬링부와 권투부 운동선수들이 지난 92년도에 부임한 김대건 체육실장에 의해 운동부를 떠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대외성적이 부실하다는 이유

로 레슬링부 선수 1명을 축소해야 한다고 해서 한명이 그만두었습니다. 3년사이에 14명이 8명으로 줄어든거죠. 권투부도 현재 두명의 선수중 한명은 장학혜택을 받지못하고 있고 3년간 신입생이 없었습니다.” 실제 각 부서별 신입생을 파악해 보면 축구부 12명, 야구부 5명, 농구부 2명, 레슬링부 1명이고 권투부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축구부와 야구부만이 감독지도 아래 운영되어지고 있고, 레슬링과 권투부는 감독·코치가 없다. 그러나 코치가 있는 농구부는 신입생 두명이 장학혜택을 받지못한채 선수생활을 하고 있고 금강관에서 퇴출한 상태에서 시험에 대비해 충분한 훈련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육부 선수들은 체육부 축소계획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권투부도장이 갑자기 무용연습실로 바

꾸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운동부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체육실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 대학교 운동부 추세가 몇몇 육성운동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본교는 축구부와 야구부를 우선 육성부로 정하고 있다.”며 체육실 한 관계자는 밝힌다. 또 “선수제명이나 기타 모든 체육부의 일은 체육실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고 체육지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체육부가 어떤 한 개인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재 체육실은 운동부학생과 감독, 체육실장 등이 모인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이번달내로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곽주영 기자)

경영대학원 출판기념회 김만진 동문 1억등 기금모금

‘경영대학원 20년지’출판 기념회가 지난달 25일 오후7시 오죽원이 사장과 민병천총장, 황명수 동창회장, 구자성 경영대학원 동창회장등을 비롯하여 재계동문, 재학생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 경영대학원 발전 과정과 역사를 간주된 ‘경영대학원 20년지’의 출판 기념회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1백주년 기념사업 기금으로 그랜드 신안개발 사장인 김만진 (85기) 동문 1억원 경영대학원 동창회장 구자성 (97기) 동문 5천만원등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재학생및 행사 참가 동문들의 참가비중 당일 행사경비를 제외한 9백만원등 1백주년 사업본부에 기탁했다.

지역개발대학원 강연회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 (원장=김병기·국제경제학)은 지난 27일 오후 7시40분 진흥관 (B10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주제로 경주캠퍼스 부총장 김갑주 (국사학)교수의 초청특강강연회를 가졌다.

임석민주대동제 열려 변화된 축제문화 반영

경주캠퍼스 제11대 총학생회 (회장=이혁승·회계4) 주최 ‘94임석민주대동제’가 오는 10일 전야제및 봉축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교내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총학생회측은 이번 대동제에 대해 “대학생활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축제분위기를 형성하고 온방울 학우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문화부부의 활성화를 통해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라고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번 대동제는 대학축제문화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취지아래 주말 3개, 먹거리상가 18개, 상거리상가 10개로 수를 제한하고 파란위 및 소규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 상설시장을 마련한다. 한편, 대동제 기간중 질서·치안 유지, 무허가 주점 및 상거리상가 단속, 대동제의 원활한 진행등을 위해 화랑대 20명과 자원봉사단 30명이 활동하게 된다. 94임석민주대동제의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일행사)

△10일= 전야제및 봉축행사 (총학·봉축위 녹아원 5시~8시30분) △11일=개막고사및 길놀이 (총학 교내사거리 1시~4시), 임석가야제 (DKBS 문무관 6시~9시) △12일=전통놀이 (KUSA 녹아원 1시~2시30분), 공개음악회 (필하모니 원외관 중정 6시~9시), 영화상영 (법정대 녹아원 6시~8시), 사경놀이 (불교학 생회 교내사거리 2시~3시30분), 태권도 겨루기 (화랑산문부 녹아원 1시~5시), 초청발표 (불교문화대 시청각실 4시~7시) △13일=학생·전경 축구 한마당 (총학 대운동장 2시), 대동제 초청공연 (여흥 문무관 5시~7시), 동아리해방제 (동원 녹아원 7시~10시) △14일=백상전 (총학문무관 5시30분~9시) (연일행사) △11일~12일=표본 전시회 (생물학과 차연대 3층) △12일~13일=영화상영 (소녀비 소강당 II) △11일~14일=축구사건전시회 (영상 전시회 화랑대 20명과 자원봉사단 30명이 활동하게 된다. 94임석민주대동제의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일행사)

안채란이사 장학회 설립 2억원 들여 여학생 대상으로



본교 안채란 이사가 재단법인 채란장학회를 설립했다.

본교 재학중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학술 연구비 지급등의 사업을 벌여나가게 될 채란 장학회는 안채란 이사가 2억원을 기부하면서 설립되었다. 장학회설립 취지에 대해 안이사는 “재단이사로서 학교에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장학혜택을 적게 받아왔던 여학생들의 장학금수혜를 늘려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채란 이사는 54년 본교 국문과

를 거쳐 82년 본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총동창회 부회장과 여학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교직원휴게실 개점 경주캠퍼스 관재과 (과장=정창현)는 지난 4월26일 11시 부총장, 교무위원등이 참여한 가운데 교직원휴게실을 개점했다. 휴원식박물관장은 “이번 전시회가 불교문화유를 소장품을 늘려나가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본교박물관이 불교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이

박물관 ‘현대고승묵향’ 전 개최

본교 박물관 (관장=홍윤식·역사교육)은 박물관소장 기증품특별전 ‘현대고승묵향’을 오는 6일부터 27일 까지 박물관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2월 강석주스님의 소장품기증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민해스님의 ‘磨杆絶筆’, 임암스님의 ‘佛堂 현대고승 묵적 및 서화, 47점 강석주스님 기증품 16점, 47점 63점이 전시된다. 또한 불교미술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한 신주호 작품 10점도 전시된다. 휴원식박물관장은 “이번 전시회가 불교문화유를 소장품을 늘려나가는 계기가 될 뿐아니라 본교박물관이 불교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따른 개막식은 오는 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학복위 도서기증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 (이하 학복위) 중앙위 (임시위원장=김희순·불교4)는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건설 합의사항으로 해화관 직영서점을 정리하게 되면서, 반쯤되지 않은 도서 전량을 중앙도서관에 기증했다. 지난 29일 도서관 앞에서 도서관장, 임시학복위원장 및 각단체 복지주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가졌으며 시가 1천6백만원 상당의 도서 1천9백여권을 기증했다.

젊은이여, 시대의 흐름을 알자!

“헤어스타일을 바꾸자”

젊음은 항상 최선의 스타일을 추구한다. 생활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임으로써 남보다 앞서 간다. 젊은이여, 독창적인 삶을 원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알자. 새로운 스타일에 주목하자.

기술의 흐름에 주목하십시오. 미래의 기술은 산업용 전기,전자기술-금성산전이 앞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기술의 스타일을 아십니까? 전기전자 기술에는 냉각고, TV 등 가전기기를 만드는 家電분야와 FA(공장자동화), 엔지니어링 등 산업용 전기전자기기 및 시스템을 공급하는 産電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이 큰 産電분야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추세-産電기술은 산업전반에 걸쳐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젊음을 투자할 만한 기술분야입니다.

- 산업자동화 분야
 - 로봇·PLC·CNC·인버터·물류자동화시스템
 - 공장 및 빌딩자동화시스템·교통신호시스템
 - 전력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 서비스설비분야
 - 엔지니어링·에스킬레이터·주차장·차량관리기기
 - 자동판매기·선동공구 등
- 전기·전자 분야
 - 초고압기기·배전설비·고저압기기·변전설비
 - 제어계측기기·광반도체 등
- 환경에너지 분야
 - 상하수처리시스템·자외선살균시스템·전기발전기 등
 - 각종 공해방지설비·태양광발전시스템·축열기기
 - 태양열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여의공원 트윈타워) 대표전화: (02)787-1114